

보험동향 2019년 가을호

총괄	조영현 (연구위원)
경영환경	최예린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보험동향	최 원 (수석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권오경 (연구원)
해외보험 동향	김세중 (연구위원) 권오경 (연구원) 최예린 (연구원) 이규성 (연구원) 이소양 (연구원)

■ 목차

I. 경영환경

1. 경제 / 2
2. 금융 / 9
3. 가계동향 / 15
4. 규제·제도 / 18

II. 보험 동향

1. 성장성 / 20
2. 수익성 / 43
3. 리스크 / 52
4. 시장경쟁 / 64

III. 해외보험 동향

1. 미국 연금시장 / 70
2. 영국 연금시장 / 75
3. 일본 연금시장 / 81
4. 중국 연금시장 / 88

I . 경영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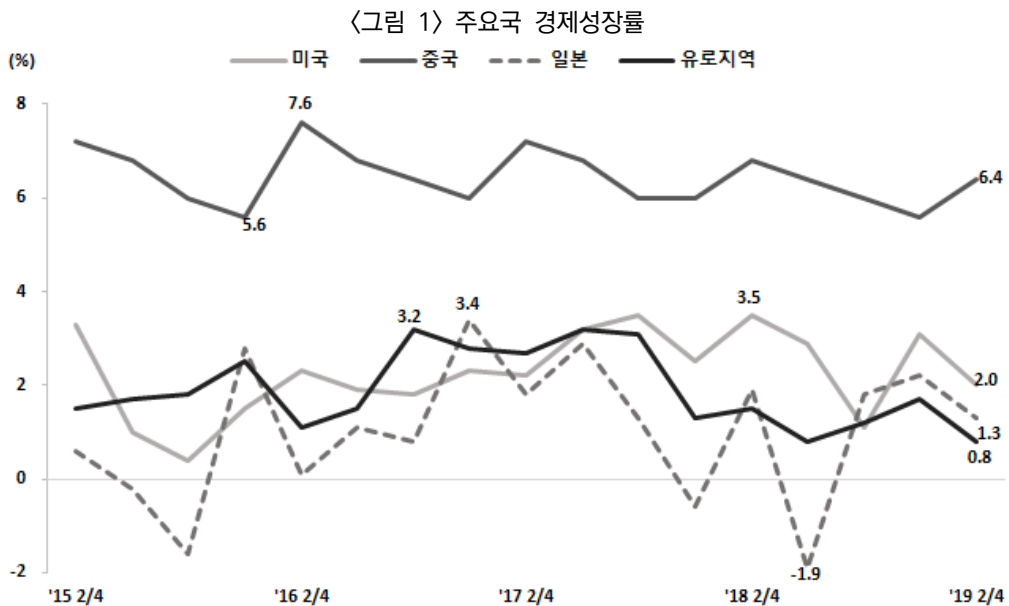
-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의 증가율은 2017년 3/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2/4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함
 - 주요 국제기관들은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여 2.9~3.0%로 제시함
-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소비, 투자 및 수출 증가율이 소폭 반등하였으나, 상승세로 전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임
 - 2019년 2/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2.0%를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여전히 하락세임
- 10월 16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 및 정책대출(안심전환대출)로 인한 MBS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임
 -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신용스프레드는 소폭 축소됨
- 원/달러 환율은 미국 제조업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확대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1,200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하락세로 전환함
 - 원/엔 환율은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 강세가 이어졌으나, 일부 불안감이 해소되고 일본 경제지표가 부진을 보이며 하락세로 전환함
- 2015년 이후 가계부문의 금융상품거래 규모가 줄고 있으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냄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정점에 이른 후 하락하여 2019년 2/4분기 31.7%를 기록함

1. 경제

가. 세계경제

■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중국을 제외하고 소폭 하락함

- 2019년 2/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8%p 상승한 6.4%를 기록하였고,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1.1%p, 0.9%p, 0.9%p 하락한 2.0%, 1.3%, 0.8%를 기록함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9. 9); 중국 국가통계국(2019. 7); 일본 내각부(2019. 9); Eurostat(20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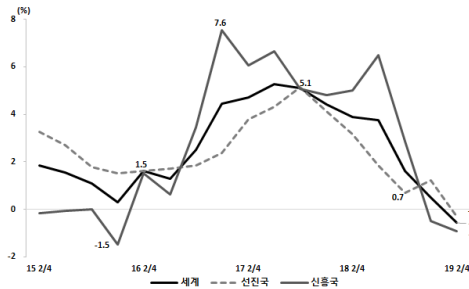
■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7년 3/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2/4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함

- 2019년 2/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고율 관세 부과 및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¹⁾ 전분기보다 각각 1.5%p, 0.4%p 하락한 -0.3%, -0.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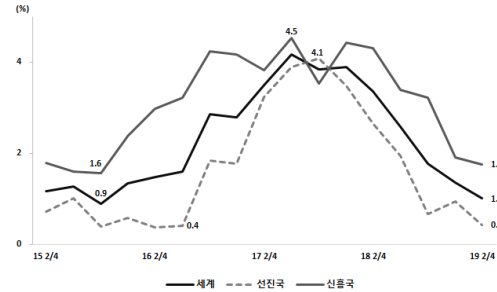
1) IMF(2019. 10), *World Economic Outlook*

- 2019년 2/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유로지역의 새로운 배출규제²⁾ 시행으로 자동차 생산이 대폭 감소하여³⁾ 전분기보다 각각 0.5%p, 0.1%p 하락한 0.4%, 1.8%를 기록함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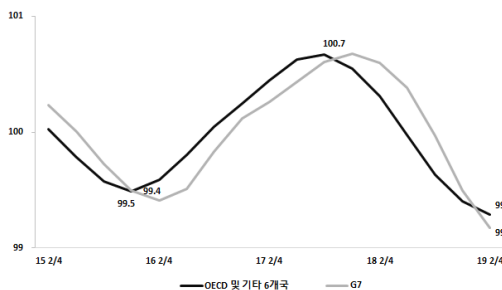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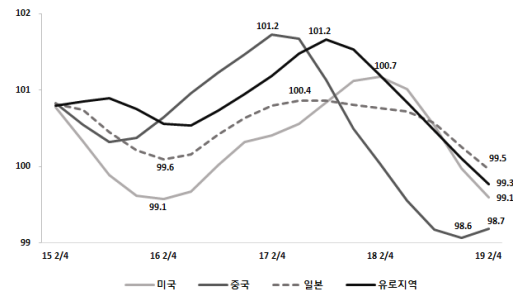
- 세계 경기선행지수⁴⁾는 2017년 4/4분기에 최근 4년 내 최고치인 100.7을 기록한 이래 6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임

- 2019년 2/4분기 G7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3 하락한 99.2를 기록하였고,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은 각각 0.4, 0.3, 0.3 하락한 99.1, 99.5, 99.3을 기록함
- 한편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0.1 상승한 98.7을 기록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

2)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는 2018년 9월 유로지역 전역에 시행됨

3) IMF(2019. 10),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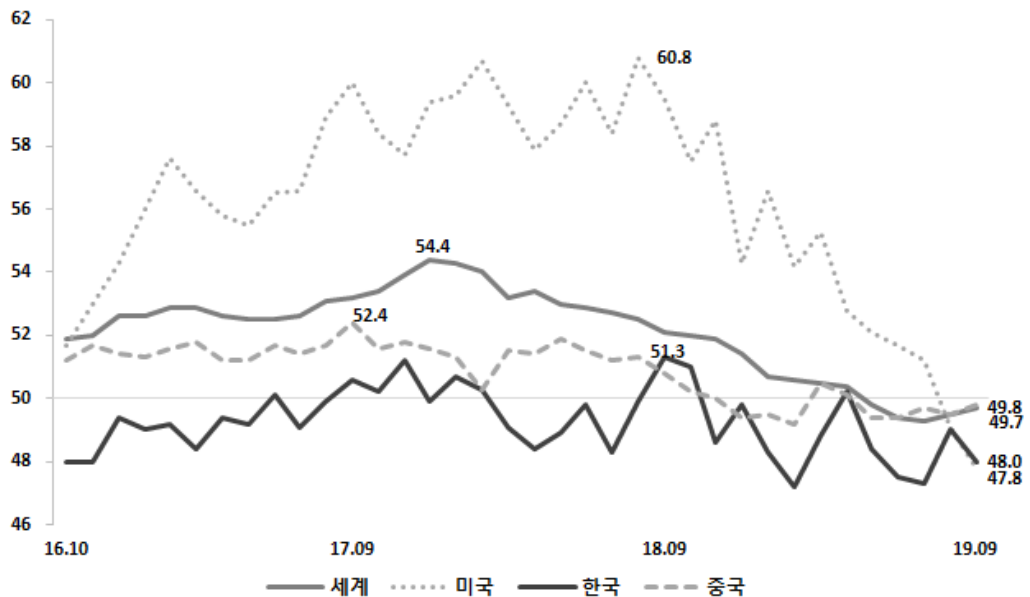
4)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⁵⁾는 2019년 7월 최근 3년 내 최저치(49.3)를 기록한 후 소폭 반등함

○ 2019년 9월 글로벌 PMI는 49.8을 기록하며 소폭 상승함

○ 2019년 9월 한국과 미국은 PMI가 하락한 데 비해 중국은 PMI가 소폭 상승함

〈그림 6〉 제조업 PMI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OECD는 최근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0.3%p 하향 조정하여 2.9%로 발표함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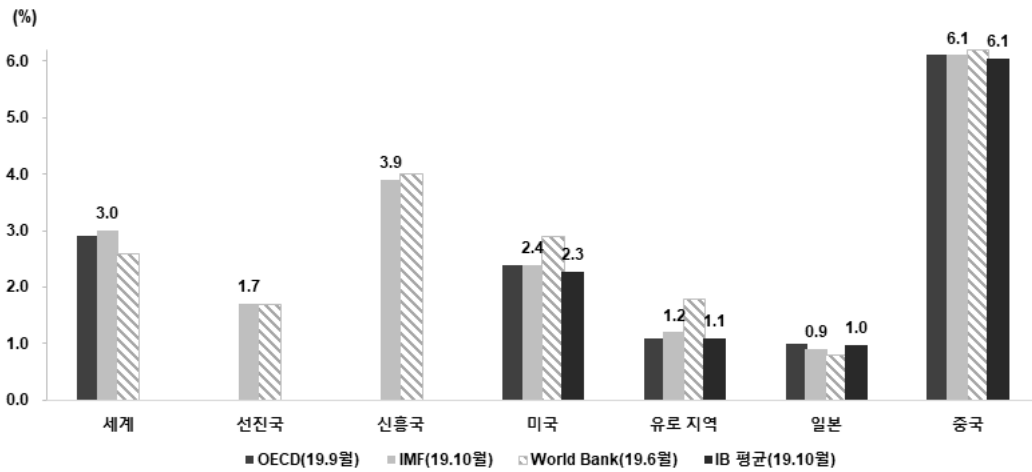
○ IMF는 기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여 3.0%로 제시함⁷⁾

5)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경기선행지수와 상관성이 매우 높음

6) OECD(2019. 9),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7) IMF(2019. 10), *World Economic Outlook*

〈그림 7〉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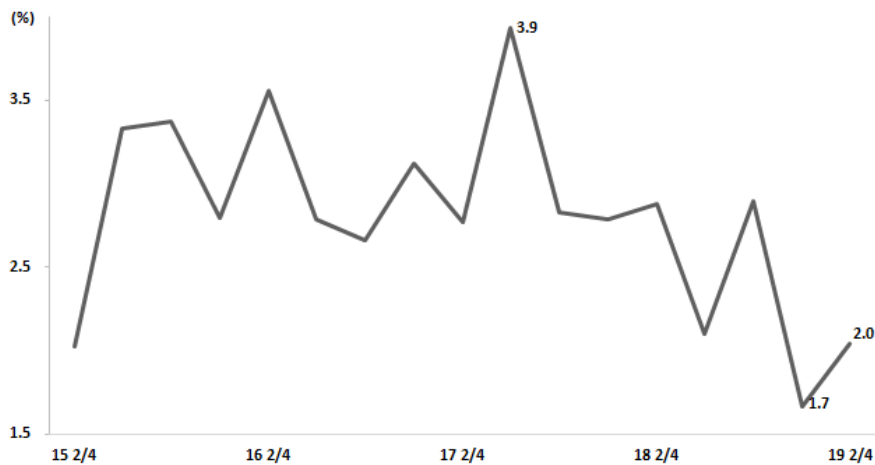


자료: IMF, OECD, World Bank, 4개 IB 평균임

나. 국내경제

■ 2019년 2/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2.0%를 기록함

〈그림 8〉 국내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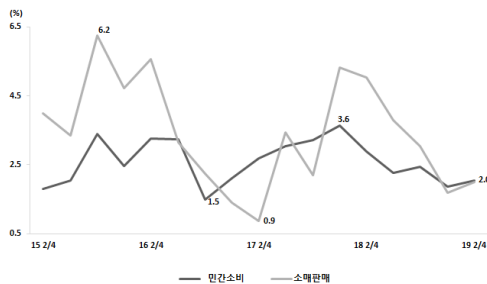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8년 1/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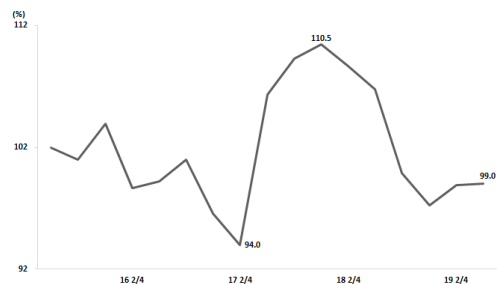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모두 2.0%를 기록함
- 2019년 2/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고용지표 개선 및 추경예산 편성 등의 영향으로⁸⁾ 전분기보다 0.1 상승한 99.0을 기록함

〈그림 9〉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마이너스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기계수주 및 건설수주는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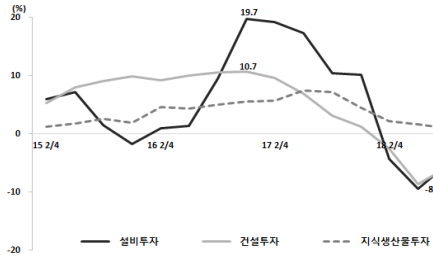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한 2.7%를 기록하였고, 건설투자 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3.7%p, 10.4%p 상승하여 각각 -3.5%, -7.0%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4월 및 6월 중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 증가의 영향으로⁹⁾ 상승함
- 2019년 2/4분기 기계수주 및 건설수주 증가율은 각각 전분기보다 3.3%p, 1.9%p 상승하여 0.5%, -2.3%를 기록함
 - 건설수주 증가율은 4월 중 주택·사무실 등 건축부문과 기계설치 및 토목 부문에서 모두 증가하여¹⁰⁾ 상승함

8) 국회예산정책처(2019. 5), 『NABO 경제동향&이슈』

9) 통계청 보도자료(2019. 5), “2019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19. 7), “2019년 6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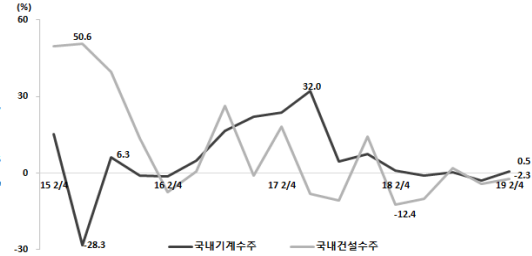
10) 통계청 보도자료(2019. 5), “2019년 4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1〉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기계수주¹⁾, 건설수주²⁾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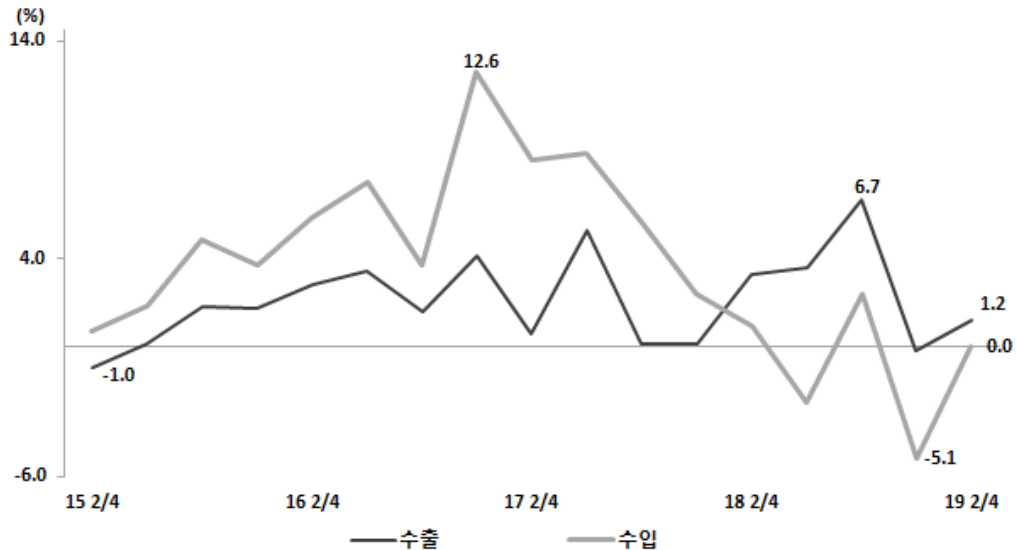


주: 1) 선박 제외함
2) 경상
자료: 통계청

■ 수출입 증가율은 2019년 1/4분기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4분기 반등함

- 미·중 무역분쟁 확대 및 한·일 관계 악화 등에 따른 전분기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19년 2/4분기 수출 증가율은 1.4%p, 수입 증가율은 5.1%p 상승하여 각각 1.2%, 0.0%를 기록함

〈그림 13〉 수출입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제성장률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 둔화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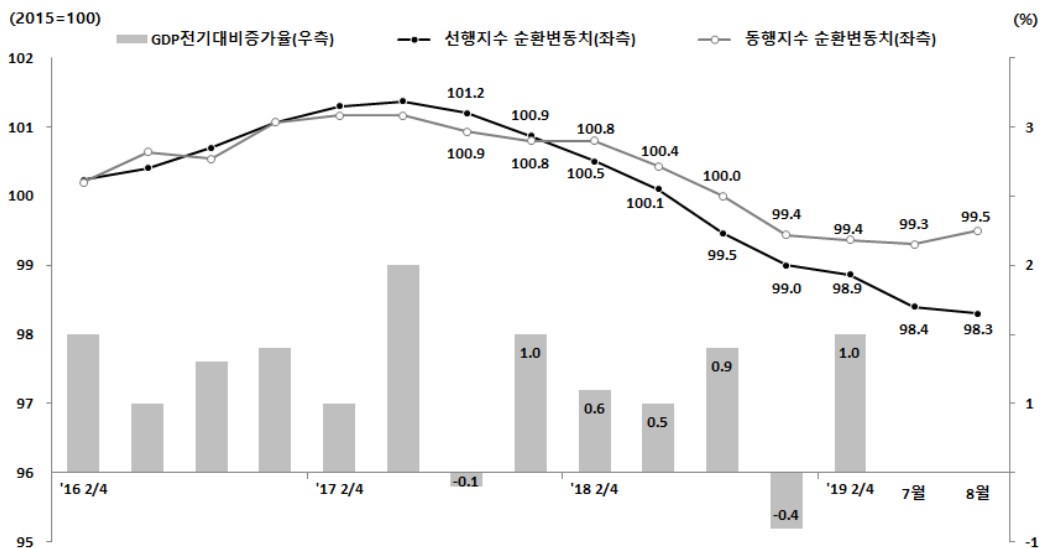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경기 선행지수¹¹⁾ 순환변동치는 수출입물가비율, 장단기금리차 등의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0.1 하락한 98.9을 기록함

- 2019년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지수 등이 감소하여¹²⁾ 전월 대비 0.1 하락함

○ 2019년 2/4분기 경기 동행지수¹³⁾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상승하였으나,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분기와 같은 99.4를 기록함

- 단, 2019년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등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생산 지수 및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¹⁴⁾ 전월 대비 0.2 상승함

〈그림 14〉 GDP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19년 2/4분기,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1)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가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12) 통계청 보도자료(2019. 9),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

13)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 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14) 통계청 보도자료(2019. 9),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

2. 금융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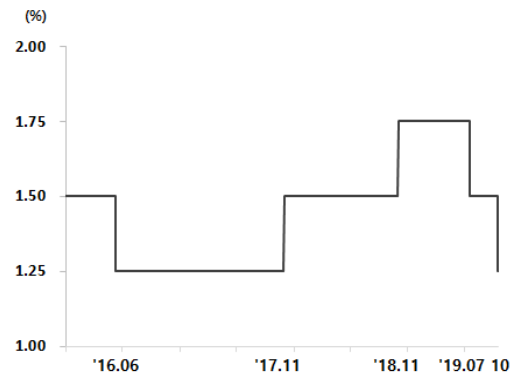
■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10월 16일 기준금리가 1.50%에서 1.25%로 인하됨

○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¹⁵⁾ 7월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

○ 국내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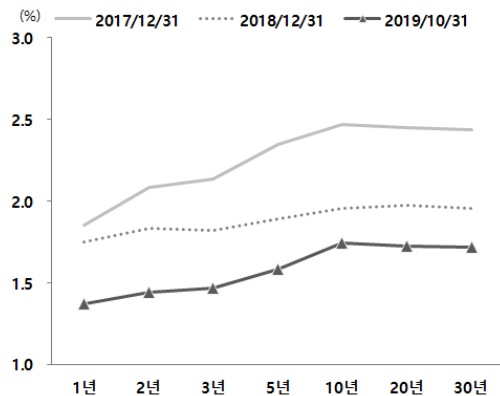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전년 동월 대비)로 역대 최초 마이너스를 기록함

〈그림 15〉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16〉 국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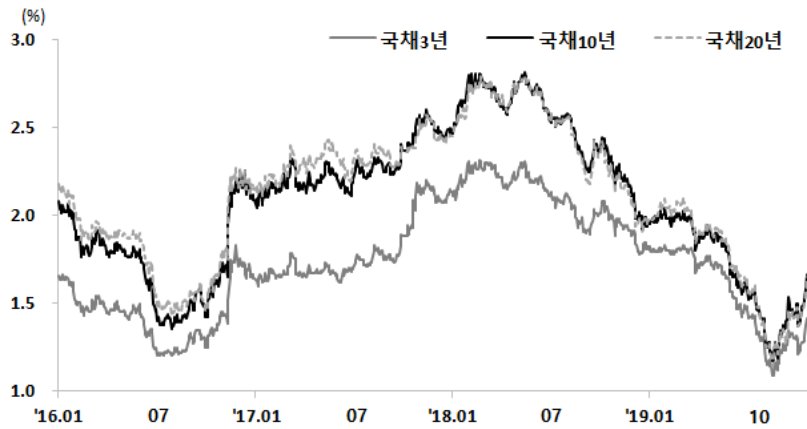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 및 정책대출(안심전환대출)로 인한 MBS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임

15)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 10. 16), “통화정책방향”

〈그림 17〉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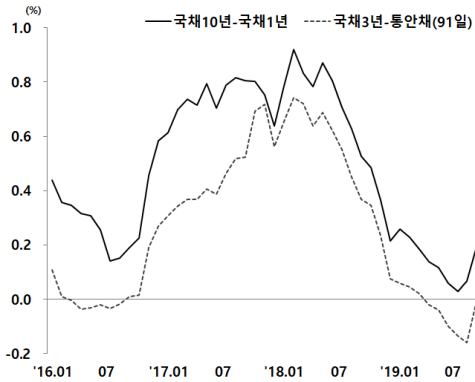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신용스프레드는 소폭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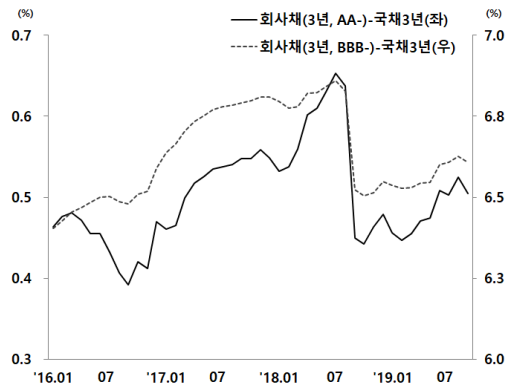
- 기준금리 인하 이후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여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되는 추세임
- 신용스프레드는 2019년 들어 완만하게 확대되다가 10월 들어 소폭 축소됨

〈그림 18〉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19〉 신용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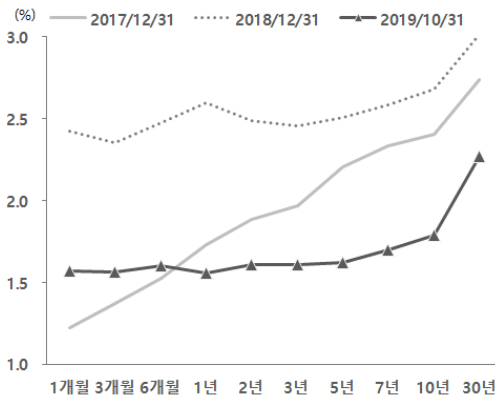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¹⁶⁾로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에 우리나라와의 금리차는 축소되고 있음

16) '19년 7월 1.75~2.00% → 10월 1.50~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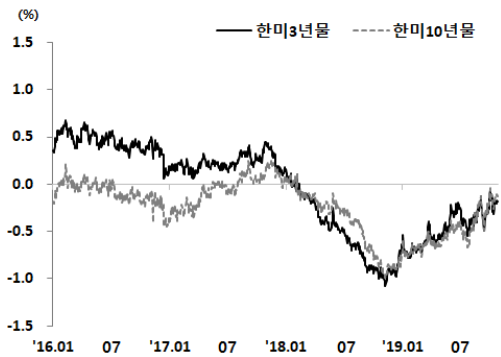
- 미 연준은 미국 경제가 2%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나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하여 10월 30일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0.25%p)를 단행함¹⁷⁾
 - '19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9%로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9월 ISM 제조업 지수(47.8)는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¹⁸⁾
-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장단기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며, 10월 금리 인하가 사실화되며 3년 이하 단기물 금리는 1.5%대, 10년물 금리는 1.7%대로 하락함

〈그림 20〉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그림 21〉 한국과 미국 금리차(3년,10년)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19년 4분기 금리 전망치를 지난 7월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함

- 2019년 4분기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1.62%, 국내 국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1.31%, 1.29%로, 상반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표 1〉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3년)금리	
상반기	4Q	상반기	4Q	상반기	4Q
2.49	1.62	1.88	1.31	1.72	1.29

주: 2019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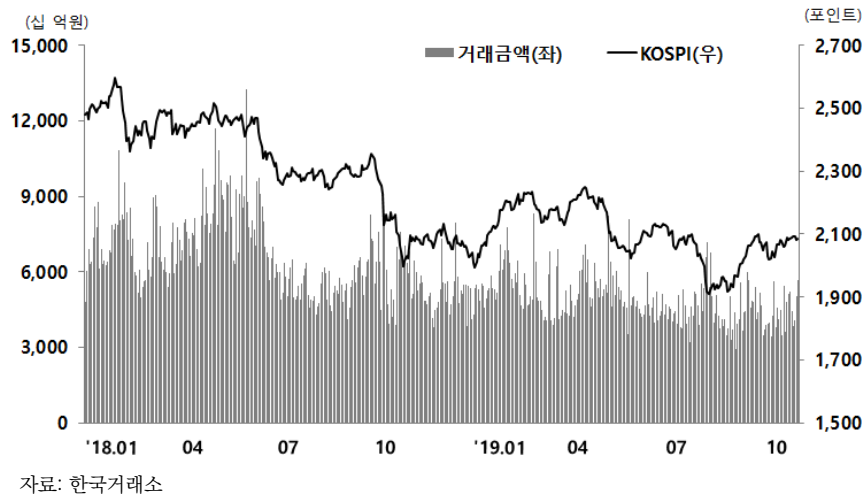
17) 연방준비제도(2019. 10. 30),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18) 국제금융센터(2019. 10. 31), 『미 '19년 3분기 GDP 실적 평가 및 전망』, Issue Analysis

〈주가〉

- 3/4분기 코스피(KOSPI)는 1,910~2,147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며,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지속 등으로 2,000선을 하회한 후 다시 회복함
-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19년 8월 2,000선을 하회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함
- 9월 홍콩의 송환법 철회,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임

〈그림 22〉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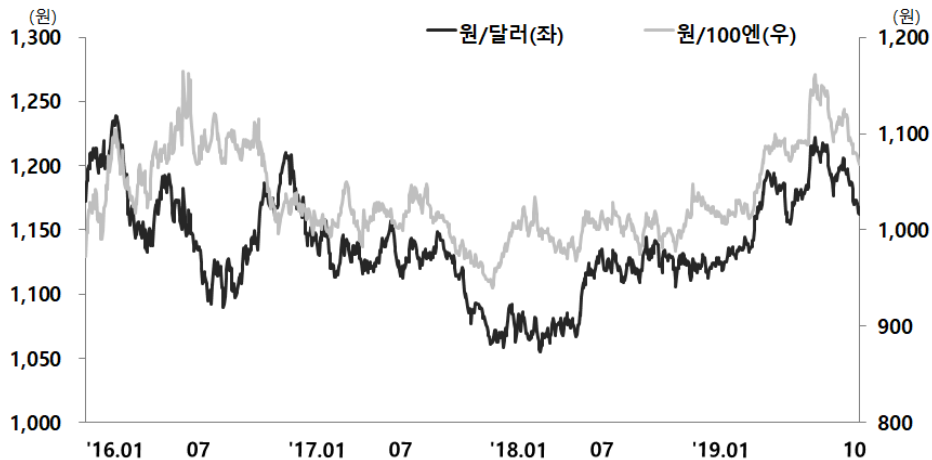
〈환율〉

- 원/달러 환율은 미국 제조업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확대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1,200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하락세로 전환함
- 9월 초까지 1,200원대를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은 미·중 고위급 회담(10. 10)으로 무역 협상 진전이 기대되고,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이후 현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1,190원대로 하락함

■ 원/엔 환율은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 강세가 이어졌으나, 일부 불안감이 해소되고 일본 경제지표가 부진을 보이며 하락세로 전환함

- 미·중 무역분쟁, 북한과 이란의 핵위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엔 환율은 8월 평균 1,141원, 9월 평균 1,113원을 기록함
- 10월에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와 브렉시트 불안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무역수지가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약세를 가중함
 - 10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37.3% 감소하여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한·일 무역 갈등으로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4.8% 감소함¹⁹⁾

〈그림 23〉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19년 4분기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과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말 소비시즌을 맞아 미국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19) 일본 재무성 보도자료(2019. 10. 21), "Trade Statistics(September 2019 & Fiscal Year April-September 2019)"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상반기	4Q	상반기	4Q	상반기	4Q
Standard Chartered	1,145.84	1,210	110.03	105	1.13	1.07
JP Morgan Chase		1,190		107		1.10
Barclays		1,220		107		1.09
Citi group		1,220		106		1.10
Morgan Stanley		1,230		101		1.15

주: 2019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3. 가계동향

■ 2018년 가계부문²⁰⁾의 자금잉여²¹⁾는 2017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 가계자금잉여가 증가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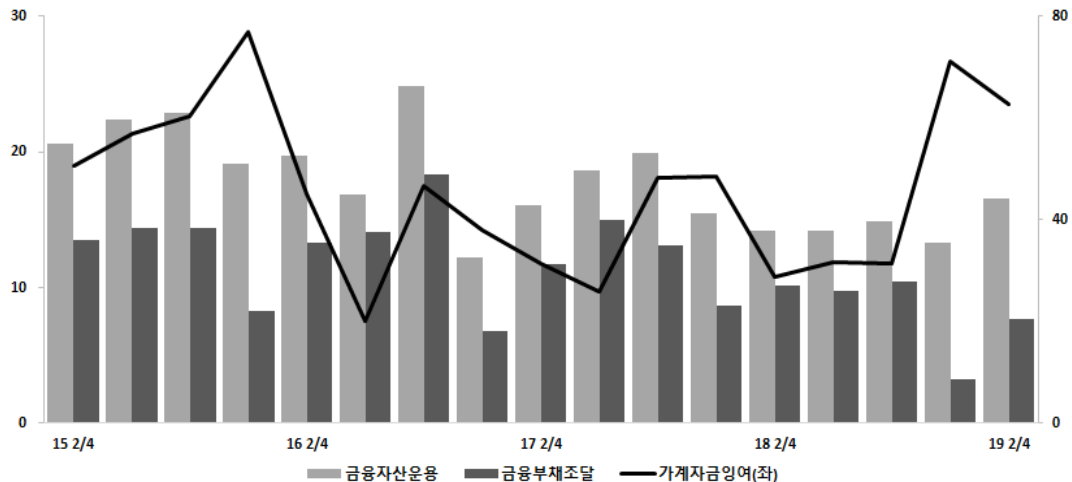
○ 2016년부터 시작된 가계부문의 자금잉여 감소세는 주택매수 확대에 기인함

- 자가보유율²²⁾: 58.0%('14)→59.9%('16)→61.1%('18)

○ 2019년 상반기 가계자금잉여 증가는 주택매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24〉 가계자금잉여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이후 가계부문의 금융상품 거래규모가 줄고 있으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냄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정점에 이른 후 하락하여 2019년 2/4분기 31.7%를 기록함

20)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21)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22) 국토교통부(2019. 3),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표 3〉 가계 금융상품거래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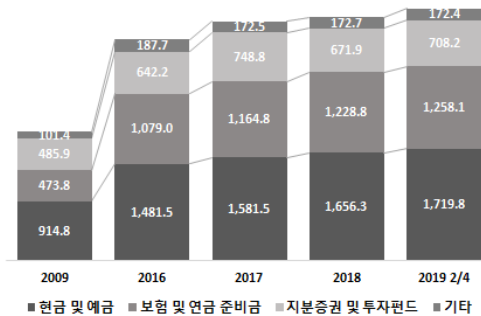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09	86.4	53.8 (37.1%)	16.1	9.7	-2.2	-18.7	-0.1	145.0
2010	95.3	65.9 (44.7%)	11.1	5.9	-0.2	-30.0	-0.6	147.4
2011	70.9	72.3 (45.6%)	11.1	7.9	-0.3	-5.9	2.5	158.5
2012	36.9	99.0 (79.7%)	10.5	-6.1	-0.4	-14.2	-1.5	124.2
2013	60.6	91.2 (60.5%)	6.1	0.7	-0.3	-7.3	-0.2	150.7
2014	76.0	90.5 (53.2%)	4.0	-0.8	0.8	-3.5	3.1	170.0
2015	107.9	89.8 (40.3%)	4.7	5.3	1.7	9.5	4.1	223.0
2016	118.3	87.7 (41.0%)	-0.9	9.9	0.1	-2.6	1.2	213.7
2017	101.2	83.3 (47.7%)	-11.8	0.0	1.1	-3.9	4.7	174.6
2018	74.3	61.4 (40.3%)	0.1	17.0	1.8	0.0	-2.1	152.4
2019 1/4	38.4	13.9 (39.3%)	-8.8	-4.9	0.3	1.8	-5.3	35.4
2019 2/4	25.7	14.0 (31.7%)	-1.7	-1.2	0.6	4.6	2.1	44.1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19년 2/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6%로 2018년 말에 비해 0.3%p 감소함

〈그림 25〉 가계 금융자산 구성(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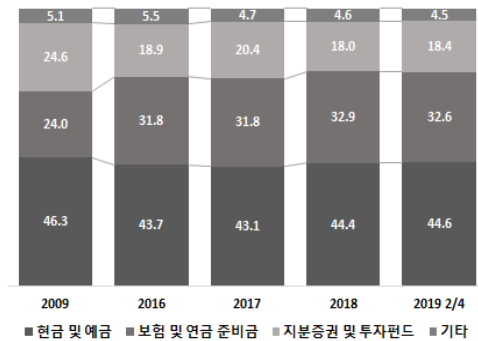
(조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26〉 가계 금융자산 구성(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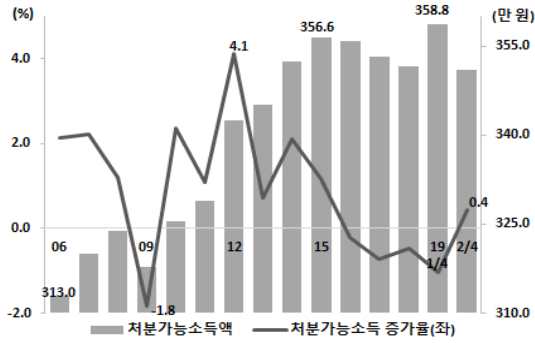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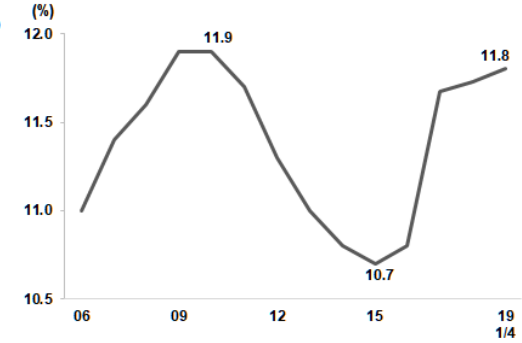
■ 2016년부터 감소하였던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2019년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 1/4분기까지 상승세임

〈그림 27〉 실질 처분가능소득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28〉 DSR



자료: BIS

4. 규제·제도

■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019. 9. 24 금융위원회)

-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하고,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함

■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제고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2019. 8. 1 금융감독원)

- 보험민원, 불완전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보험 판매채널 간 신뢰도 경쟁 유도를 위한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 개시(2019. 7. 22 금융위원회)

-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를 개시하여 보험설계사와 GA의 경영사항 및 불완전판매율 등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함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19. 7. 18 금융위원회)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로, 보험계약 모집, 광고 규제 및 상품공시 등 보험 회사의 영업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함

■ 치매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보험약관 개선(2019. 7. 2 금융감독원)

- 대한치매학회 의료자문 및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치매보험금 지급 조건도 소비자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예정임

II. 보험 동향

- 보험산업의 자산성장률은 2018년 둔화 추세였으나, 2019년 1/4분기와 2/4분기에는 상승세를 나타냄
 - 2019년 2/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함
 - 다만, 이러한 자산성장의 상당부분이 금리 하락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 평가의 때문이며, 보험영업을 통한 성장이 정체 혹은 퇴보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은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며, 2019년 1/4분기와 2/4분기에도 전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26.6조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의 만기 보험금이 늘고 있으나 수입보험료는 줄고 있는 점이 보험영업현금 흐름 감소세의 주요인임
-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사업비)은 2018년 3/4분기 이후 마이너스 상태임
 - 2019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함
 - 그러나 같은 기간 손해보험산업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1%, 10.8% 증가함
-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손실 확대와 변액보험 수수료 수입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32.4% 감소하였으며, 손해보험 당기순이익도 손해율과 사업비율 상승으로 29.5% 감소함
 - 생명보험은 신규 판매 확대 부진 등으로 해지율, 사업비율, 지급률이 상승하고 있음
 - 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2018년 103.0%에서 2019년 상반기 105.4%까지 상승함
- 2019년 2/4분기 보험산업의 금리리스크는 줄어드는 반면,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는 소폭 상승함

1. 성장성

〈보험회사의 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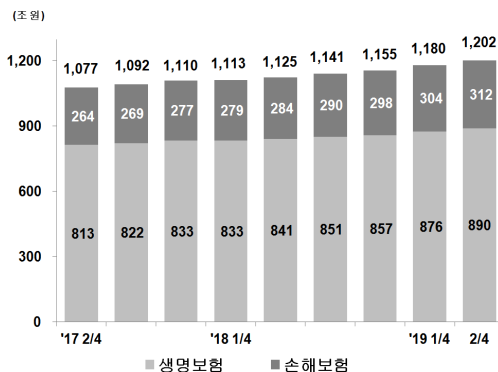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산성장률을 제시함
 - 보험산업은 통상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측정함
 -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영업 중심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투자영업) 부문을 간과하고 현금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보험산업의 성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보여주는 지표는 자산성장률로 판단됨
- 본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보험산업 자산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여 각 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

가. 자산

■ 보험산업 총자산은 2019년 2/4분기에 1,202조 원으로, 은행과 증권 산업 대비 각각 36%, 245%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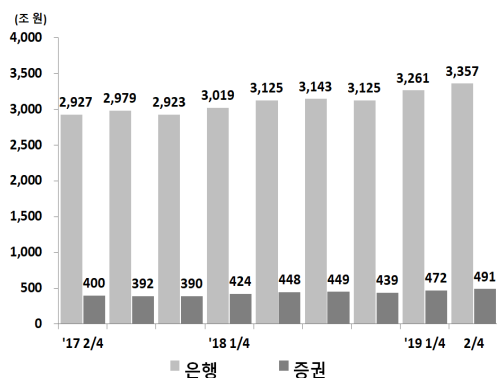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890조 원이며, 손해보험 총자산은 312조 원을 나타냄
- 은행과 증권 산업의 총자산은 각각 3,357조 원과 491조 원을 기록함

〈그림 1〉 보험산업 자산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 은행 및 증권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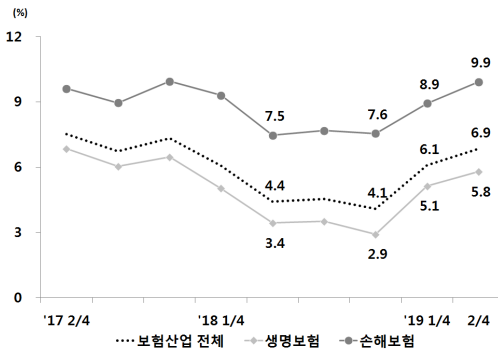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 2018년 말까지 보험산업의 자산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2019년 1/4분기와 2/4분기에는 상승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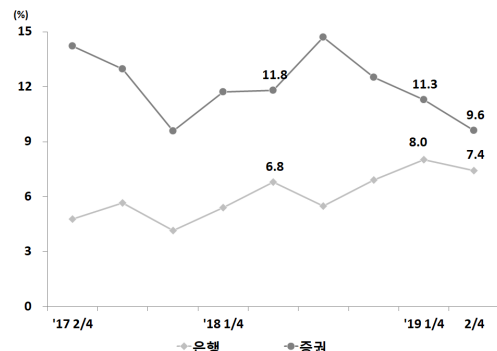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함
- 신계약 성장 둔화로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으나, 손해보험의 장기 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확대에 자산 성장률이 상승함
- 반면, 은행의 자산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4%로 전분기 증가율에 비하여 0.6%p 하락하였으며, 증권의 자산성장률도 9.6%로 2018년 3/4분기 이후 하락세를 이어감

〈그림 3〉 보험산업 자산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 은행 및 증권 자산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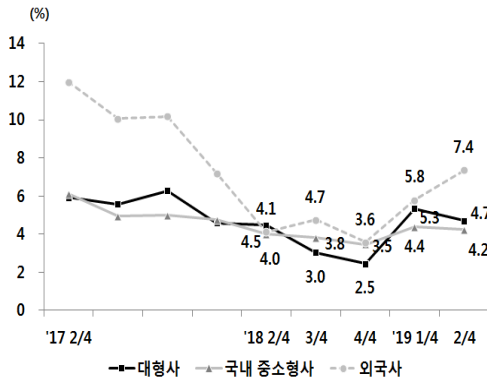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2019년 2/4분기 외국사의 자산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하여 상승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국내 중소형사의 자산성장률은 상승한 반면 외국사의 자산 성장률은 하락함¹⁾²⁾

- 2019년 2/4분기 생명보험 외국사의 자산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하여 1.6%p 상승한 7.4%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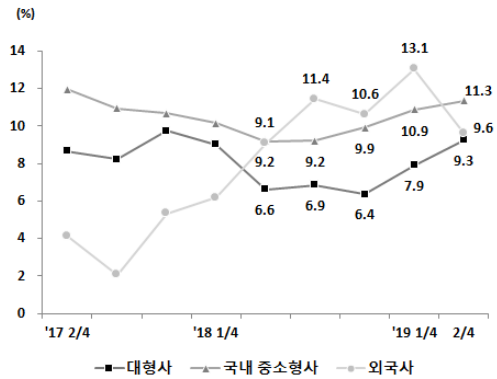
1) 생명보험산업은 총 24개사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3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 12개 회사와 외국사 9개 회사를 포함함
2) 손해보험산업은 총 30개사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 9개 회사와 외국사 17개 회사를 포함함

- 같은 기간 손해보험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산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하여 0.4%p, 1.4%p 상승하였으나, 외국사의 자산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3.5%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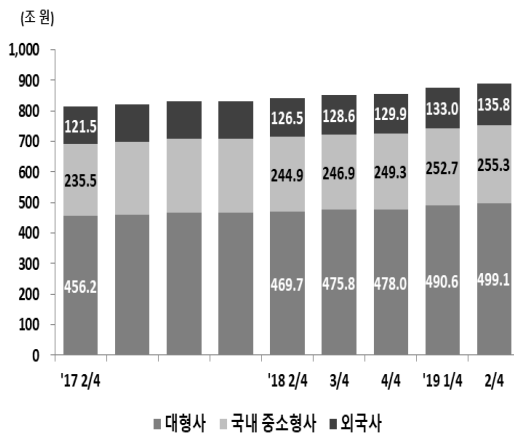
〈그림 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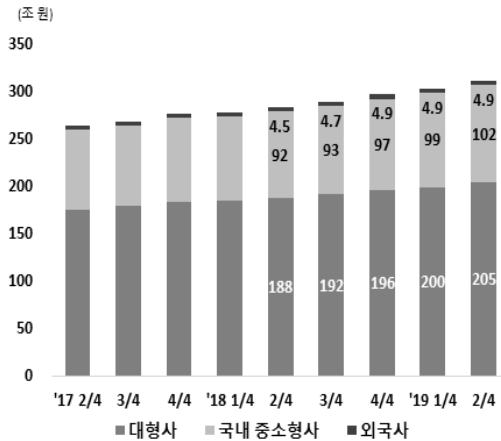
〈그림 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그림 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그림 8〉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주: 1) 생명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이며, 국내 중소형사는 12개사, 외국사는 9개사임

2) 손해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이며, 국내 중소형사는 9개사, 외국사는 17개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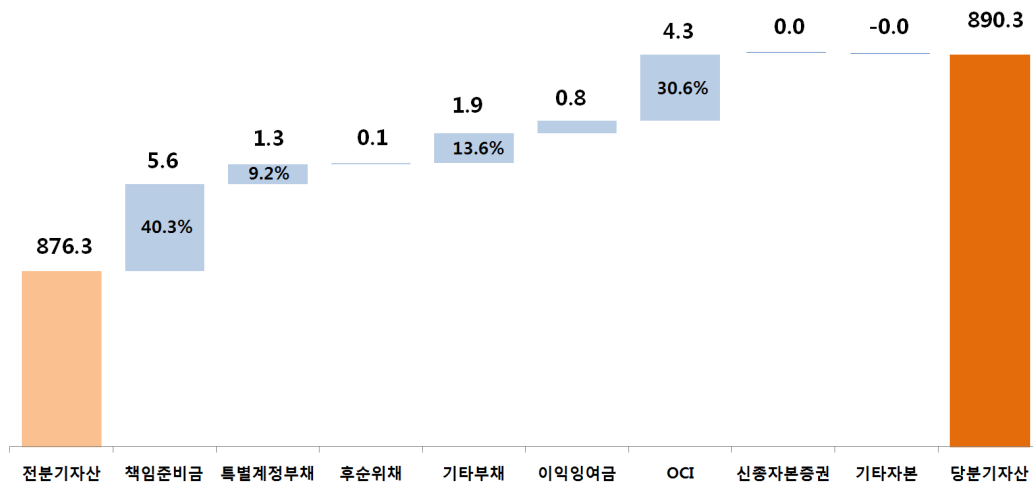
나. 생명보험 성장 요인

- 2019년 2/4분기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 증가 이외에 생명보험 자산 성장에 기여한 주요인은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증가와 기타부채 증가임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에 비하여 4조 2,827억 원 증가하였으며, 자산 성장에 30.6% 기여함
-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는 각각 5조 6,401억 원, 1조 2,848억 원 증가함
- 한편, 기타부채는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 등이 크게 증가하여 자산 성장에 13.6% 기여함

〈그림 9〉 생명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와 부리이자(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책임준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보험금(발생손해액), 사업비 및 ‘수입보험료 속에 포함된 위험률차익과 사업비차익’은 책임준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임
 -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 기타(LAT 추가적립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음
 -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이 드러나지 않음
-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

- 손익계산서로부터 '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 이므로
- '책임준비금전입액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인데,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책임준비금 증감

$$= \text{책임준비금전입액} + \text{기타}$$

$$= [\text{보험영업이익} + \text{투자영업이익} - \text{영업이익}] + \text{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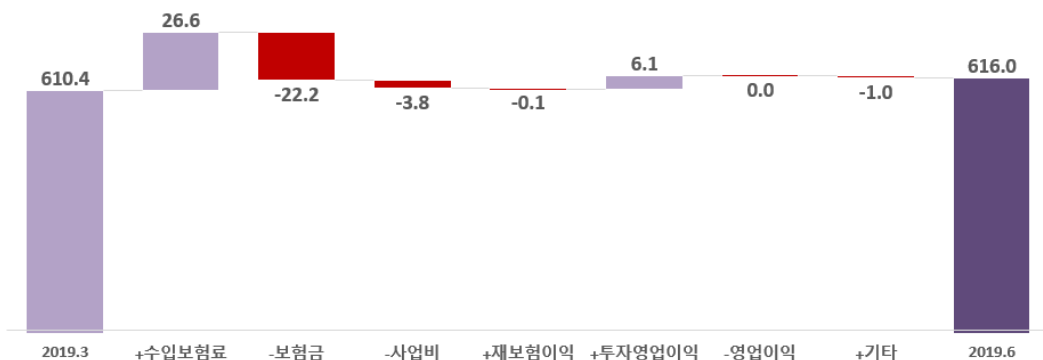
$$= [(\text{수입보험료} - \text{보험금} - \text{사업비}) + (\text{재보험수익} - \text{재보험비용}) + \text{투자영업이익} - \text{영업이익}] + \text{기타}$$
- 공시된 회계상의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은 대략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으로 이해할 수 있음

1)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은 5조 6,401억 원 증가하였는데, 수입보험료가 보험금과 사업비³⁾ 지출액을 소폭 초과하여 책임준비금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투자영업이익도 책임준비금 증가에 기여함
- 투자영업이익은 6조 682억 원으로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증가에 크게 기여함

〈그림 10〉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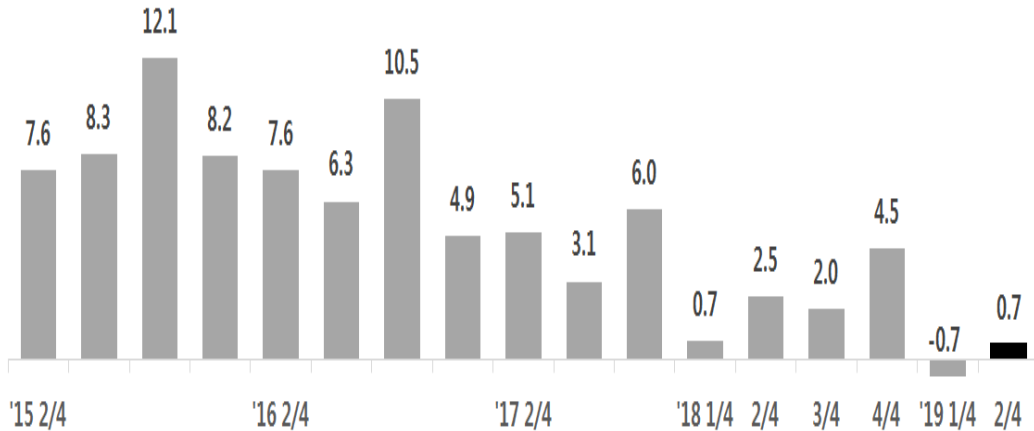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여기서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전 전 사업비임

■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은 2019년 1/4분기 -7,161억 원, 2/4분기 6,734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11〉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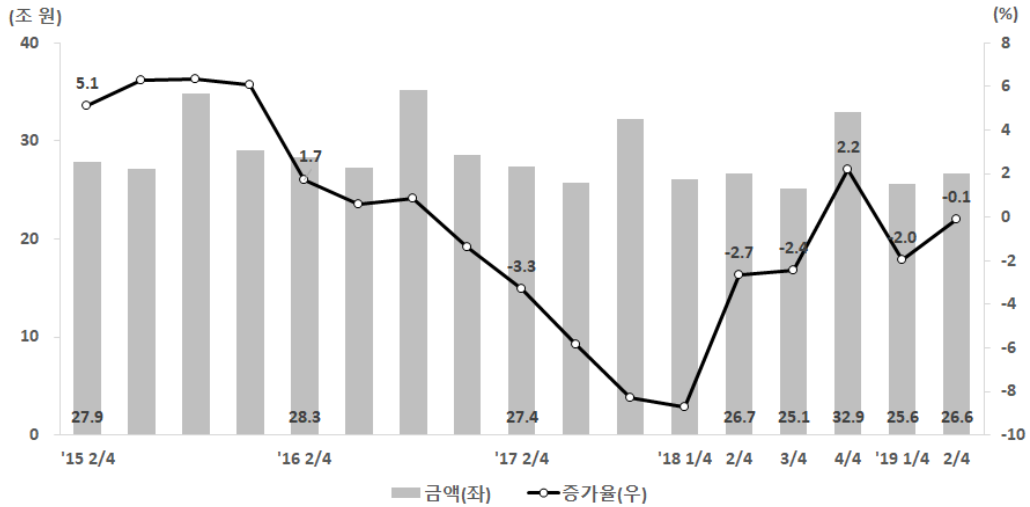
주: 보험영업현금 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이연전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9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26.6조 원을 기록하여 감소세가 소폭 완화되었음

- 이는 중·저가형 건강보험의 판매가 확대되고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감소폭도 축소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생명보험 시장의 성숙으로 보장성보험 신규 판매 확대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저축성보험 역성장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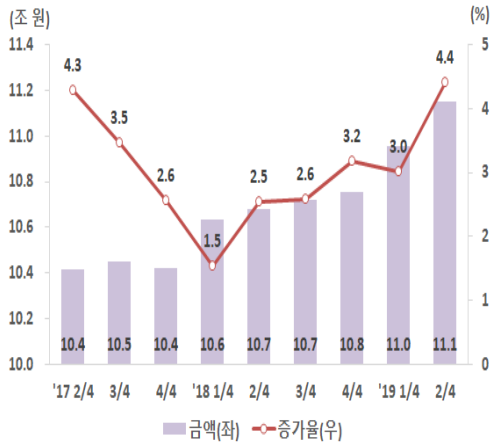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종목별로 보면,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저축성보험은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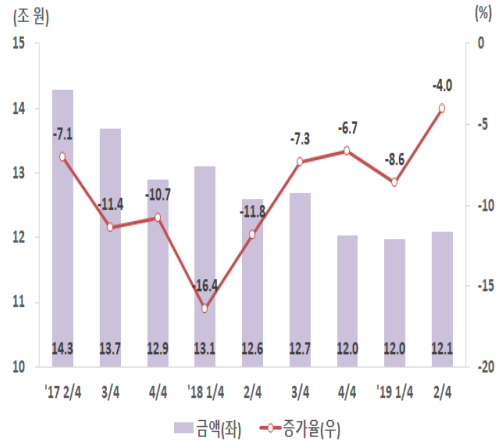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은 치매보험, 유병력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 등 새로운 상품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11.1조 원을 나타냄
- 저축성보험은 판매실적 둔화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12.1조 원을 나타냈으나, 감소폭은 축소되는 모습을 보임
-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3%, 1.7% 증가한 3.2조 원, 0.19조 원을 기록함

〈그림 1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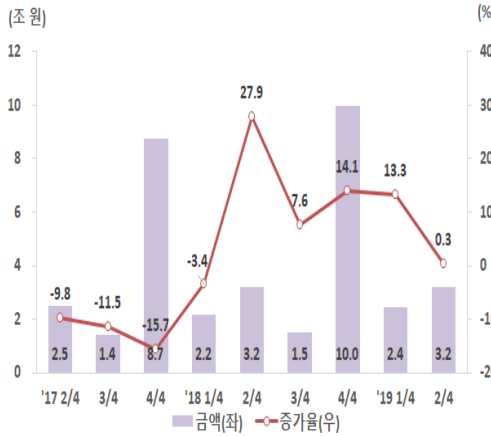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4〉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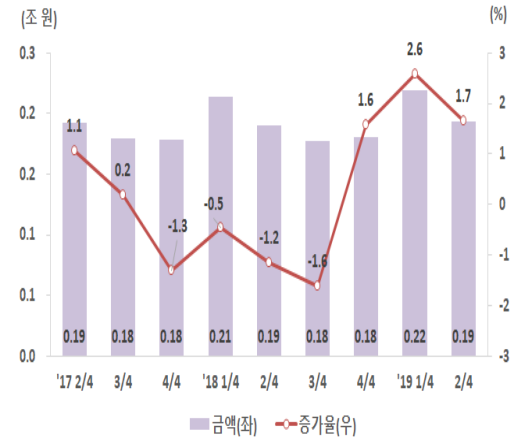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5〉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6〉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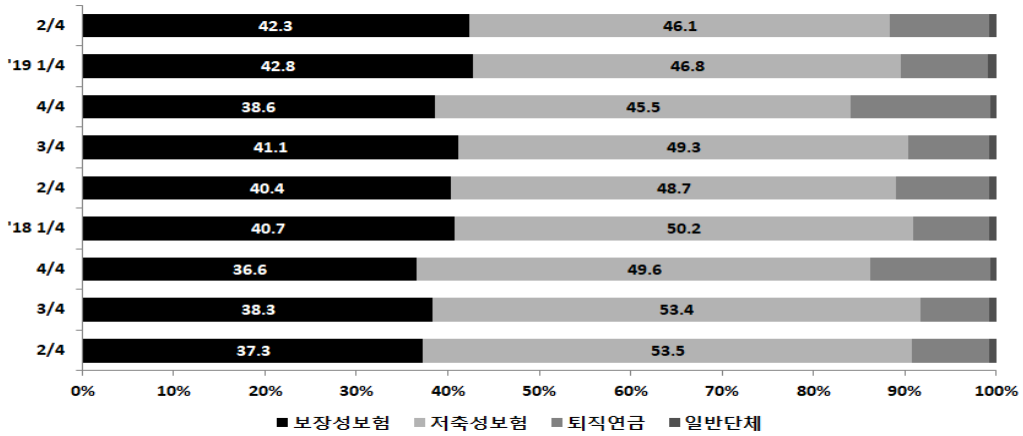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계속됨에 따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임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2017년 2/4분기 53.5%에서 2019년 2/4분기 46.1%로 축소됨

○ 반면, 같은 기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37.3%에서 42.3%로 확대됨

〈그림 17〉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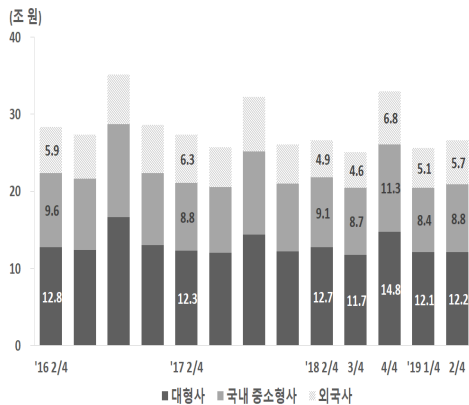
주: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19년 2/4분기 대형사와 국내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한 반면 외국사의 수입보험료는 증가함

○ 대형사와 국내 중소형사는 최근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위축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입보험료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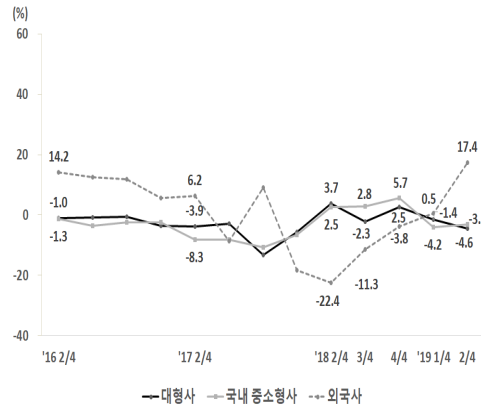
○ 외국사는 일부 회사의 중·저가형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수입보험료가 증가함

〈그림 1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9〉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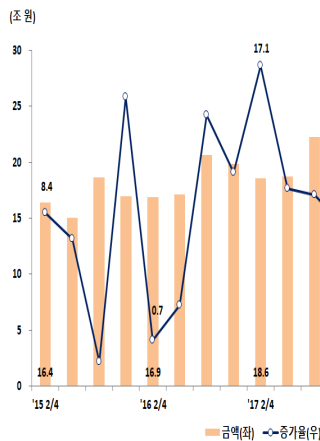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생명보험 보험금 및 사업비

■ 2019년 들어 보험금과 사업비가 모두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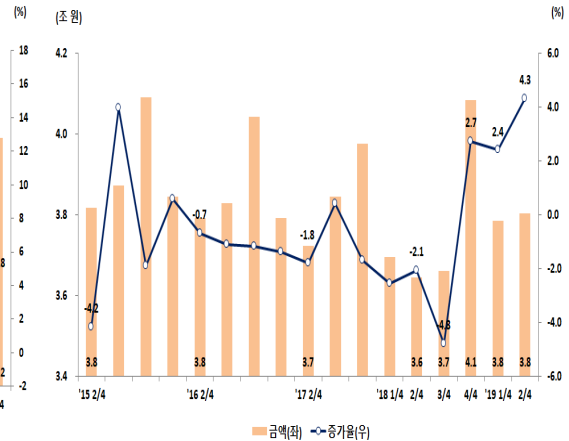
- 보험금은 2019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8%, 3.8% 증가함
- 사업비는 신규 판매 위축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다 2018년 4/4분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2019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 4.3% 증가함
-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소폭의 신규 판매 회복세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함

〈그림 20〉 보험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1〉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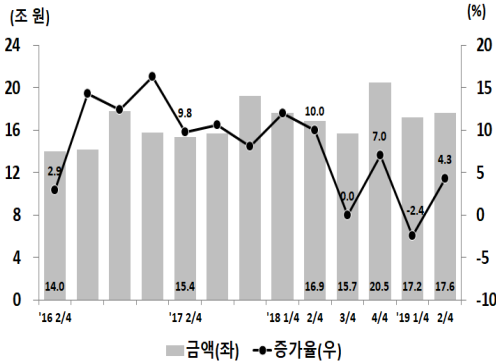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생명보험의 2019년 2/4분기 보험금의 경우 배당금을 제외한 환급금, 사망 및 상해 보험금, 만기 및 퇴직 보험금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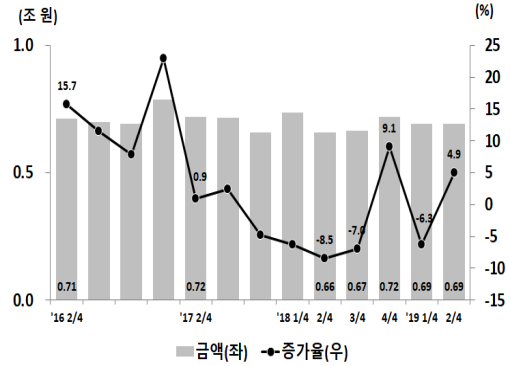
- 특히, 저축성보험은 만기 보험금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입보험료는 줄어들고 있음

〈그림 22〉 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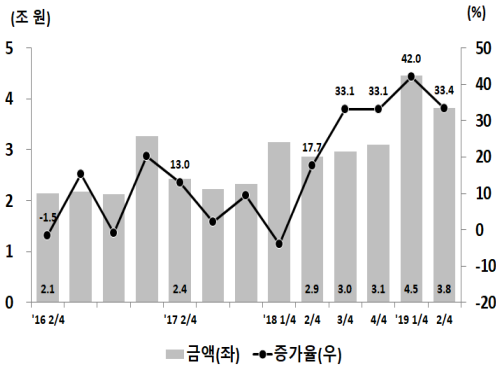
주: 분기 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3〉 사망 및 상해 보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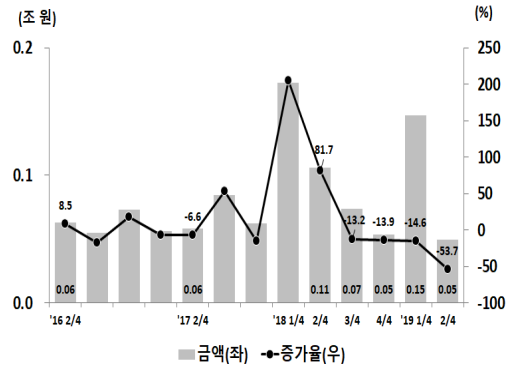
주: 분기 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4〉 만기 및 퇴직 보험금



주: 분기 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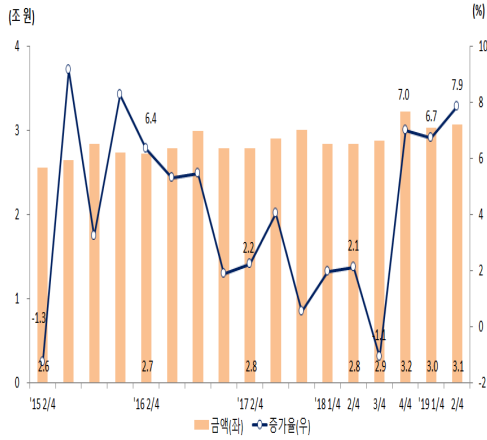
〈그림 25〉 배당금



주: 분기 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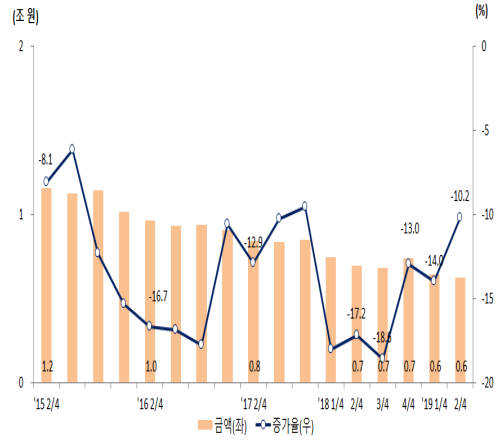
-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증가한 반면,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신규 판매 둔화로 감소함
-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2019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7%, 7.9% 증가하며 상승세를 나타냄
-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2019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0%, 10.2% 감소함

〈그림 26〉 보장성보험 사업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7〉 저축성보험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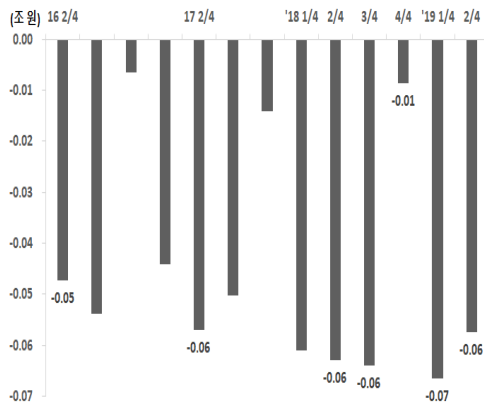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 2019년 2/4분기 생명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0.06조 원 적자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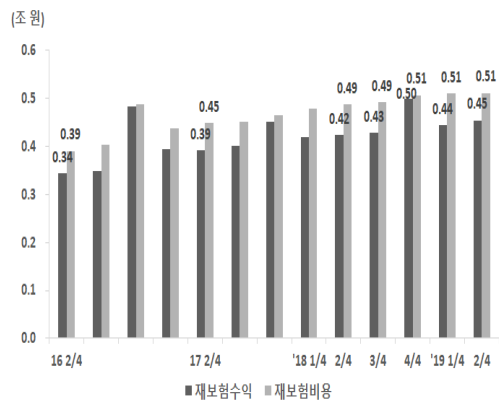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재보험수익과 재보험비용은 각각 0.45조 원과 0.51조 원을 기록함

〈그림 28〉 생명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9〉 생명보험 재보험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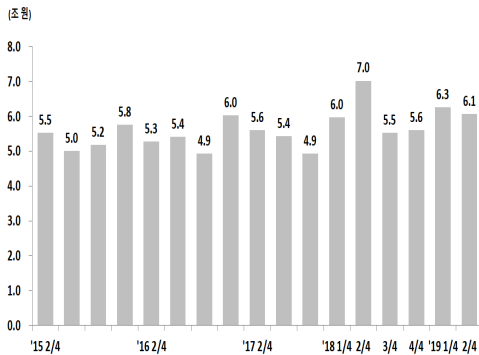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 2019년 2/4분기 생명보험 산업의 투자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6.1조 원과 281억 원 흑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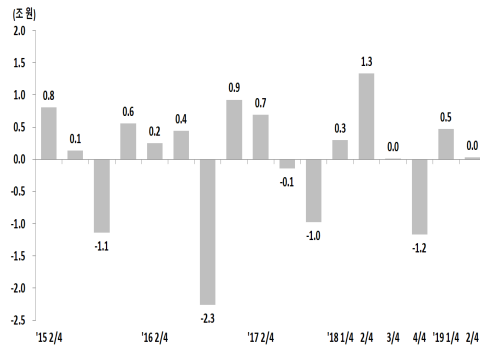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0.9조 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주식 처분 이익⁴⁾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이며, 이러한 효과를 제외한 투자영업이익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처분 및 평가이익 증가로 인해 확대되었음
-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1.3조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저축성보험 만기도래 등으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 30〉 투자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1〉 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생명보험산업의 후순위채 규모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2/4분기에도 전분기에 비하여 754억 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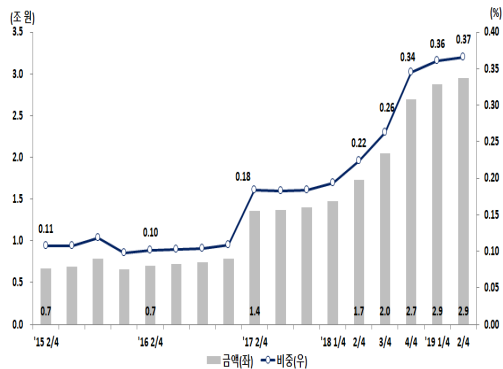
- 생명보험 후순위채 규모가 2015년 2/4분기 0.7조 원에서 2019년 2/4분기 2.9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1%에서 0.37%로 확대됨
- 자본 확충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RBC비율이 낮은 생명보험회사들의 후순위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2018년 2/4분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이익이 반영되면서 전체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이 확대됨

■ 생명보험 기타부채5)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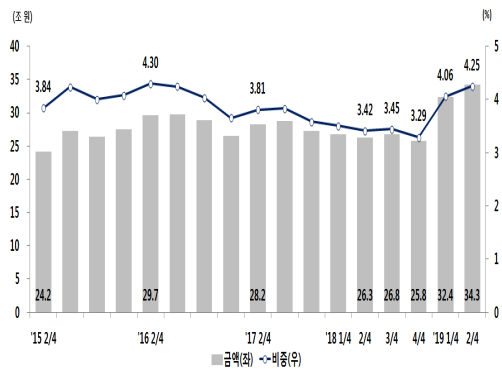
- 생명보험 기타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4분기 3.29%에서 2019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4.06%, 4.25%로 확대됨
- 이는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함

〈그림 32〉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3〉 기타부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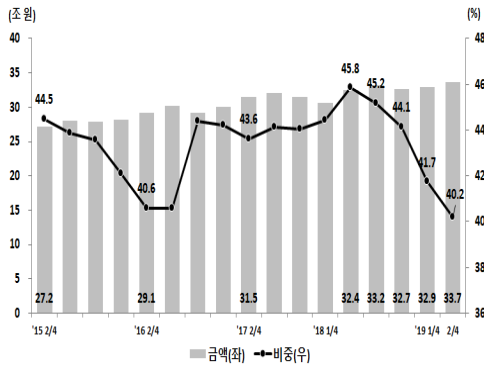
3) 생명보험 자본

■ 2019년 2/4분기부터 이익잉여금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된 반면, 같은 기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됨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는 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채권평가이익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한편, 신종자본증권과 기타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4분기 이후 축소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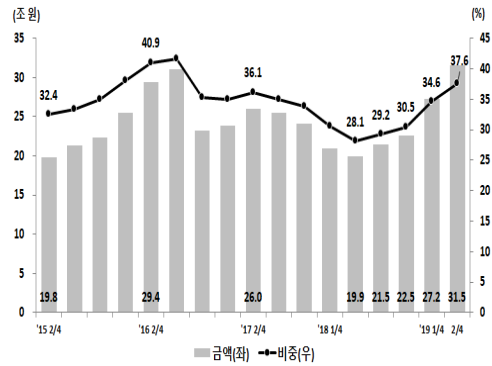
5)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그림 34〉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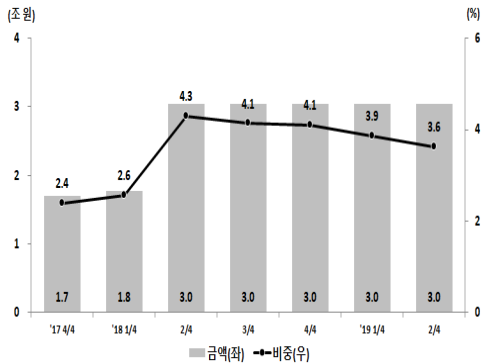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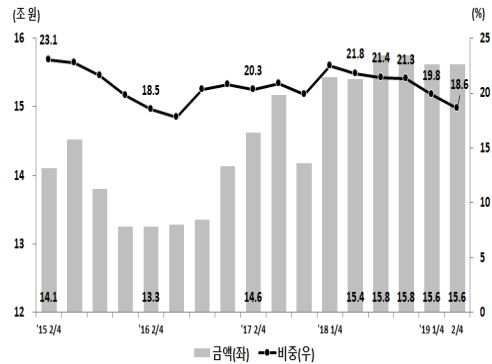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6〉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7〉 기타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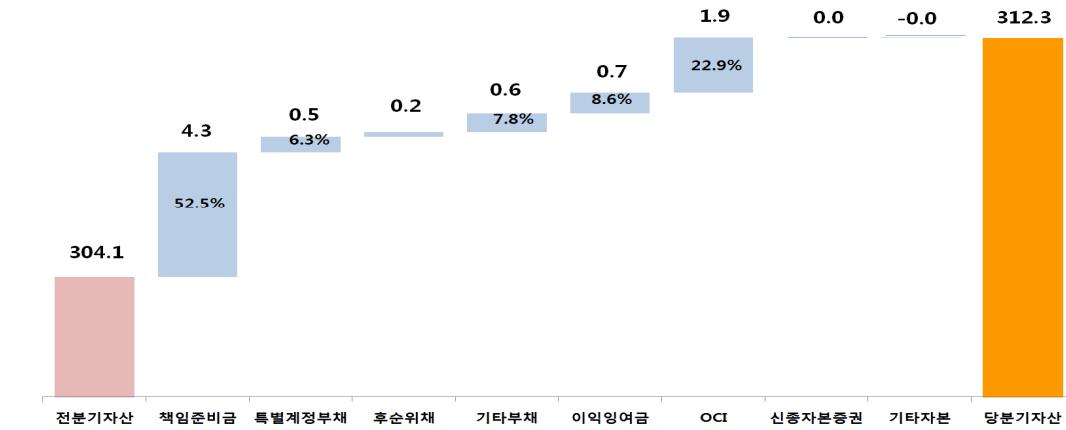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손해보험 성장 요인

- 손해보험산업은 총자산이 8조 2,110억 원 증가하였는데, 책임준비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순으로 성장에 기여함
- 책임준비금 증감이 52.5%로 가장 기여도가 높았으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이 각각 22.9%와 8.6% 기여함

〈그림 38〉 손해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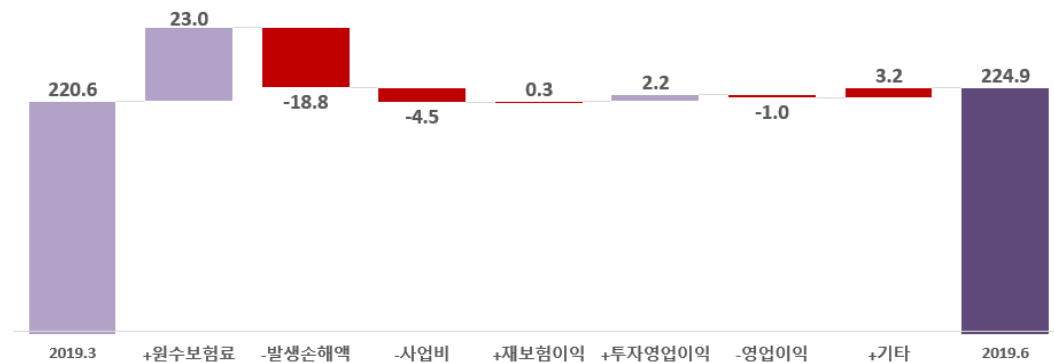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은 4조 3,063억 원 증가하였는데, 발생손해액과 사업비⁶⁾ 지출이 원수보험료를 3,179억 원 초과하여 책임준비금 증가를 억제시킴

〈그림 39〉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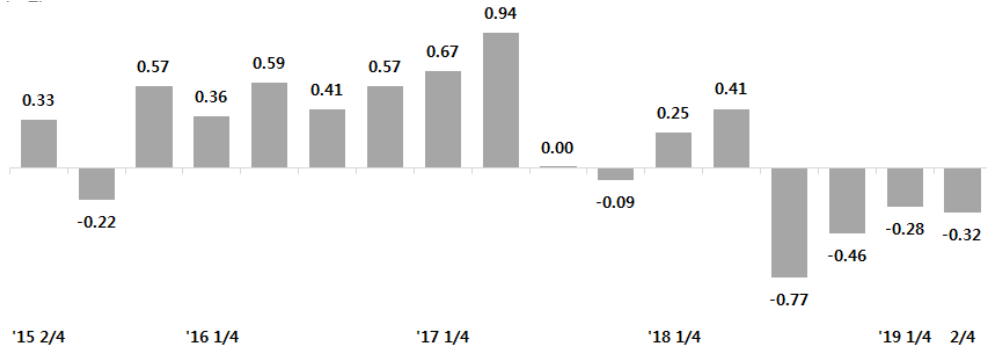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6) 여기서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전전 사업비임

-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사업비)은 2018년 3/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 2/4분기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임

〈그림 40〉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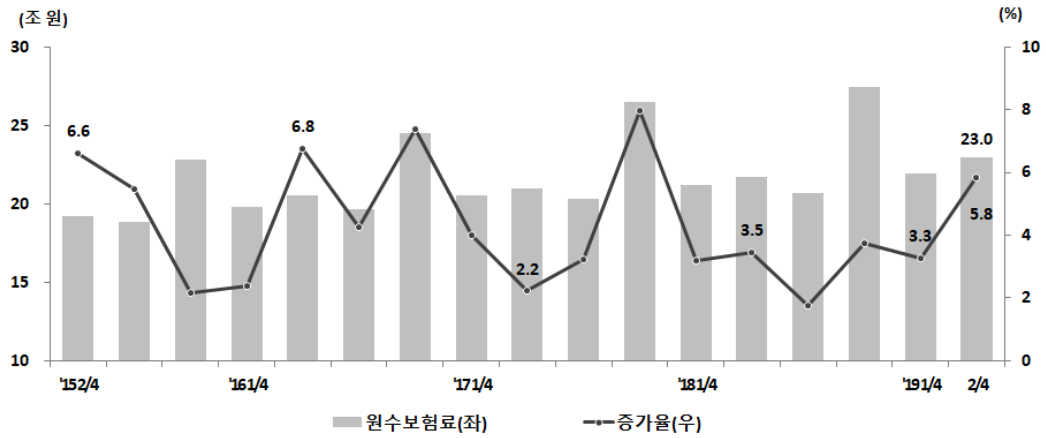


주: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이연전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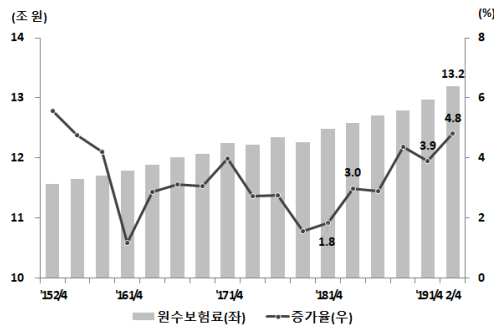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23.0조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질병보험의 확대에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13.2조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4.4조 원을 나타냄
 - 2019년 하반기까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의 견조한 증가세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2.6조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하며 역성장이 계속되었으며, 퇴직연금은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2.0조 원을 나타냄

〈그림 41〉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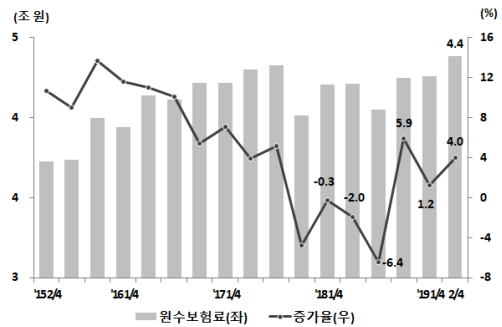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2〉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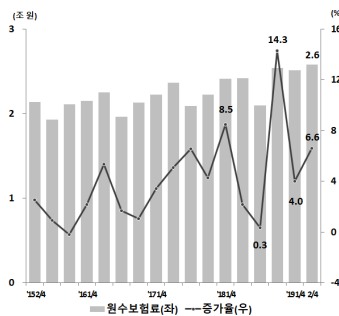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3〉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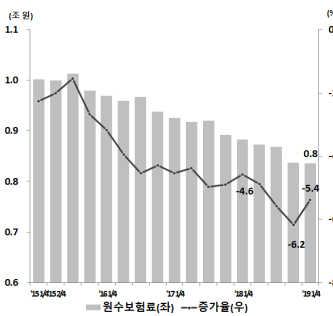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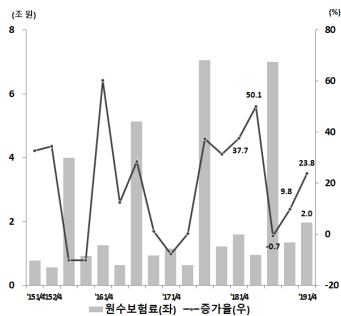
〈그림 44〉 일반손해 보험료 및 증가율



〈그림 45〉 개인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그림 46〉 퇴직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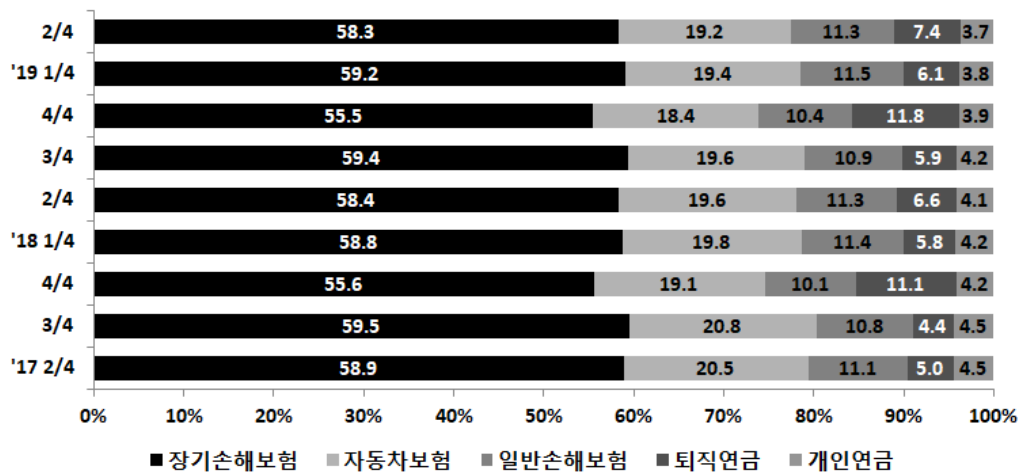
■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개인연금 비중이 완만하게 축소되는 추세이며, 퇴직연금 비중은 소폭 확대되고 있고,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과 개인연금 비중은 2017년 2/4분기 20.5%, 4.5%에서 2019년 2/4분기 19.2%, 3.7%로 축소됨

○ 같은 기간 퇴직연금 비중은 5.0%에서 7.4%로 확대됨

○ 한편, 2019년 2/4분기 장기손해보험은 5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반손해보험은 11.3%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47〉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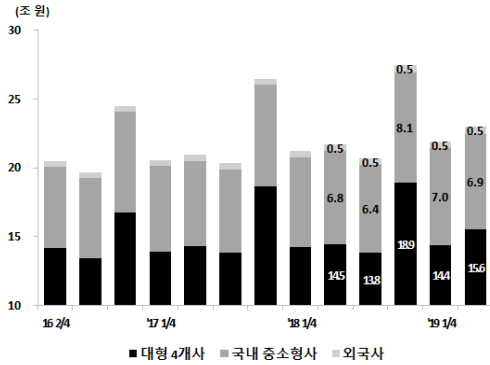


주: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19년 2/4분기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상승한 반면, 국내 중소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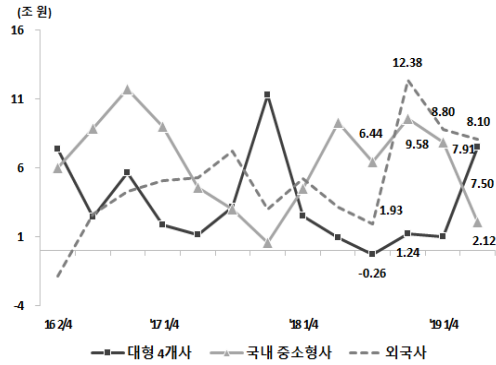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대형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의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7.50%, 2.12%, 8.10%임

〈그림 48〉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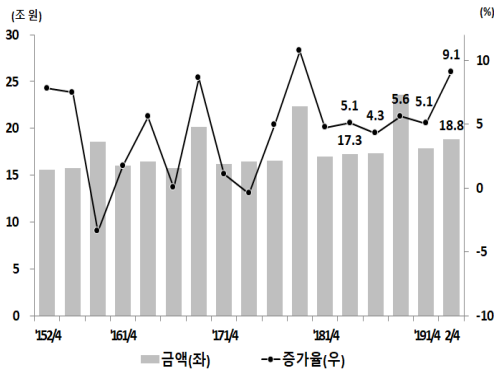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 손해보험산업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1%, 10.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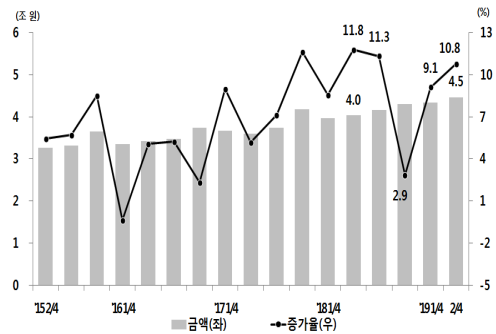
- 장기손해보험과 정비요금 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으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의 발생손해액이 증가하였으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도 보험사고 증가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규모가 확대됨
- 사업비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과 개인연금은 감소함
 - 장기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신규판매 둔화로 사업비가 줄어든 반면, 장기 상해 및 질병 보험은 판매경쟁 확대로 사업비가 증가함
 -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인터넷, 모바일 이용 확산에 따른 온라인보험 판매 증가로, 개인 연금 사업비는 신규판매 위축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임

〈그림 50〉 발생손해액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1〉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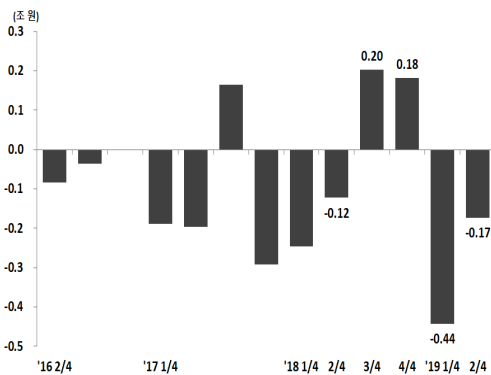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 손해보험 산업의 재보험 이익은 2019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0.44조 원, 0.17조 원 적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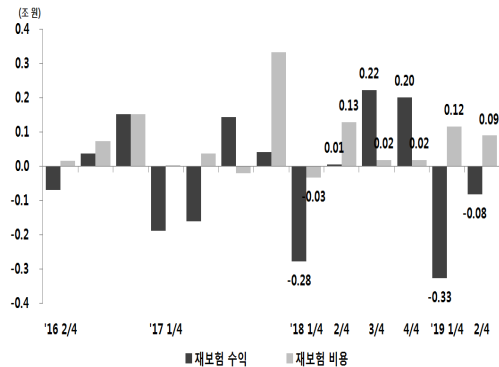
○ 이는 출재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여 재보험수익이 줄어든 데다 수재보험금 증가로 재보험 비용도 증가했기 때문임

〈그림 52〉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3〉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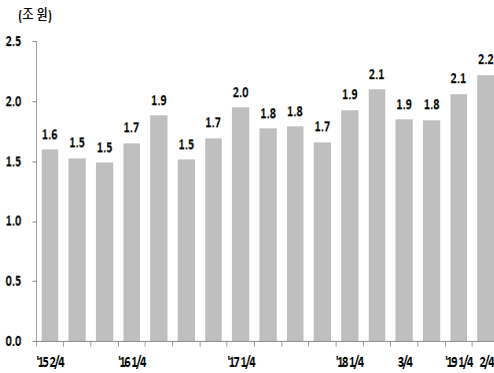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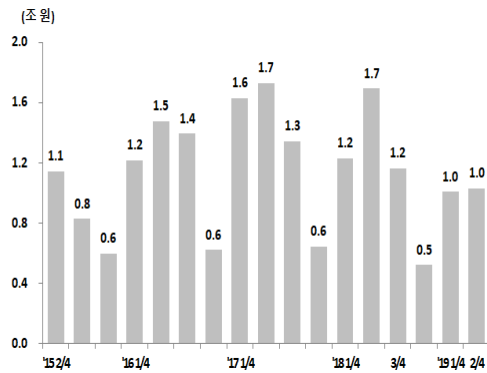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0.1조 원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손해율 상승과 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0.7조 원 감소함

〈그림 54〉 투자영업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5〉 영업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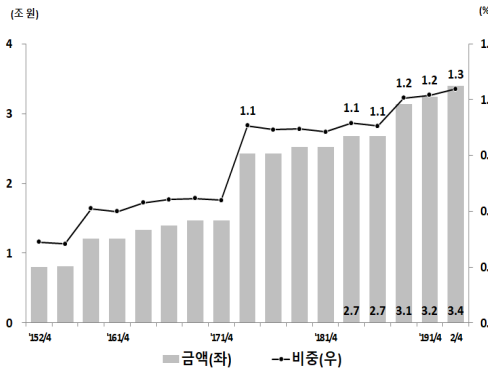
2) 손해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손해보험산업의 후순위채와 기타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후순위채는 전분기 대비 0.2조 원 증가한 3.4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분기 대비 0.1%p 증가한 1.3%를 나타냄
- 기타부채는 전분기 대비 0.6조 원 증가하여 16.6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비중도 전분기 대비 0.1%p 증가한 6.1%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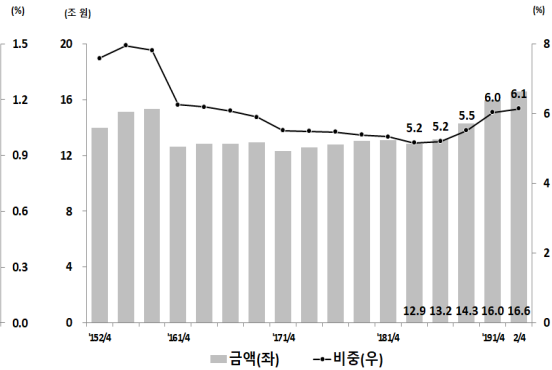
7)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그림 56〉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7〉 기타부채



주: 1) 기타부채는 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값임

2)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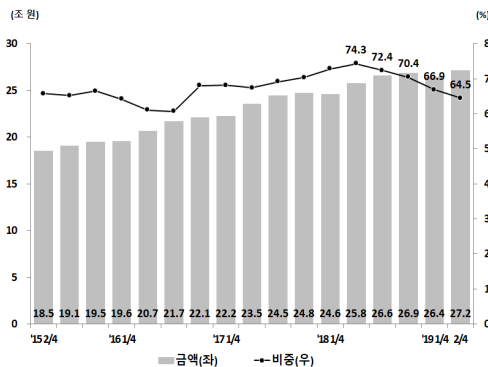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자본

■ 손해보험산업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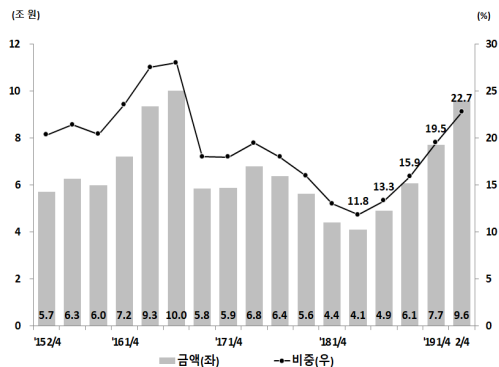
○ 이는 시중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가운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 58〉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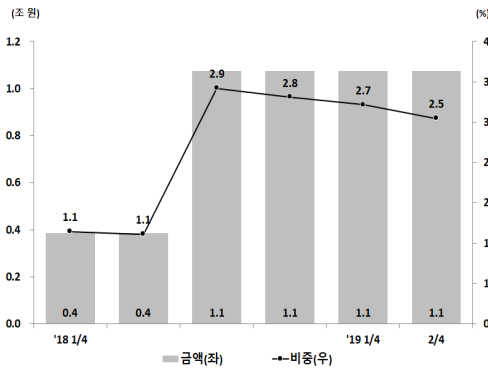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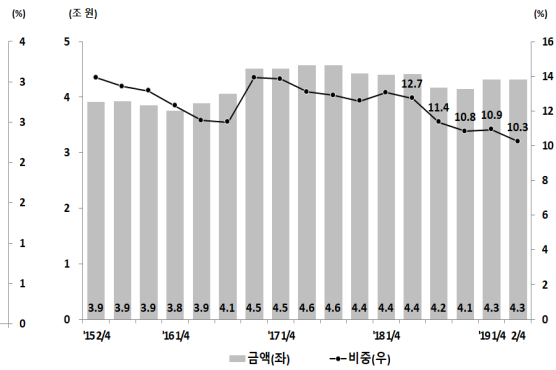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0〉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1〉 기타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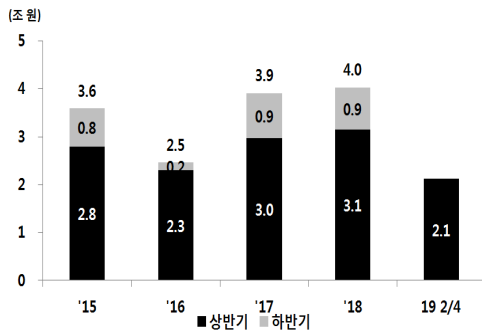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수익성

가.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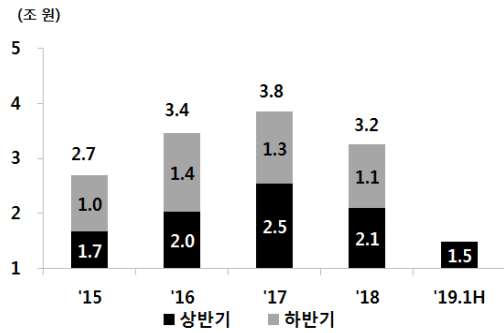
-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4% 감소한 2.1조 원 흑자를 기록함
 - 이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의 처분 이익은 증가하였으나,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되고 변액보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데다 2018년 상반기 주식 처분 이익 확대에 의한 기저 효과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2019년 상반기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5% 감소한 1.5조 원 흑자를 기록함
 - 금융자산 운용수익 증가로 투자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손해율 상승과 사업비 증가 등으로 보험영업손실은 확대됨

〈그림 62〉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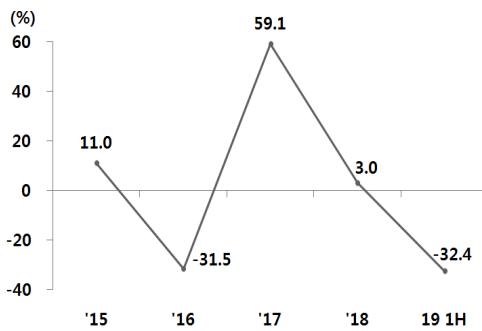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3〉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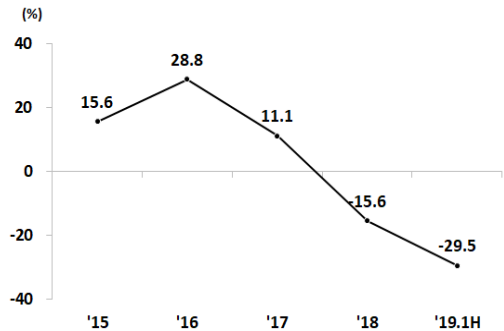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4〉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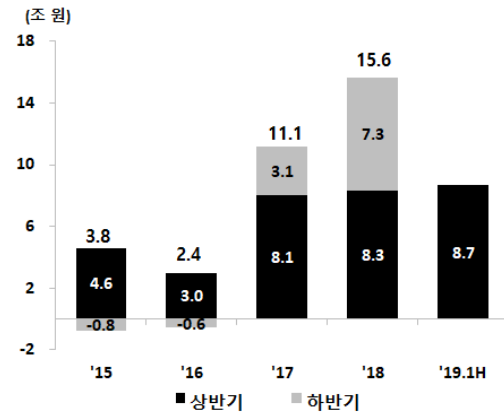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5〉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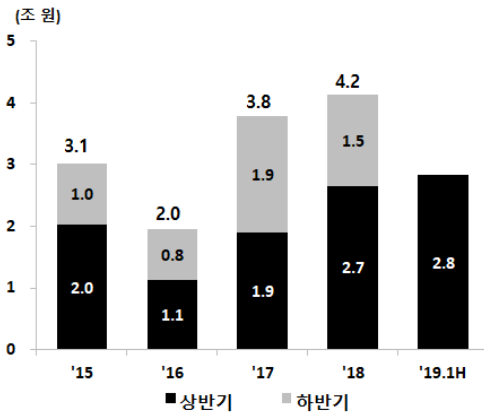
■ 2019년 상반기 은행과 증권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8%, 6.6% 증가한 8.7조원과 2.8조 원을 기록함

〈그림 66〉 은행 당기순이익



주: 1) 국내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됨
 2)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015년 6월 이후 합병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67〉 증권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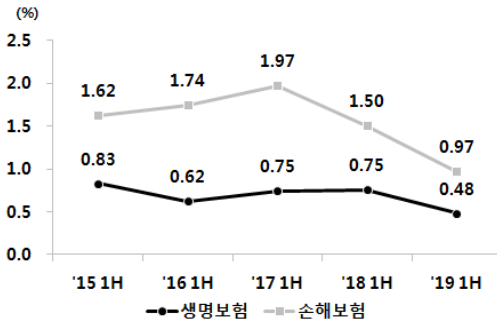


주: 노무라, 다이와, 리딩, 맥쿼리, 신영, 코리아에셋은 3월 말
 결산이므로 결산시점을 기간 맞춤함
 자료: 금융감독원

나. ROA,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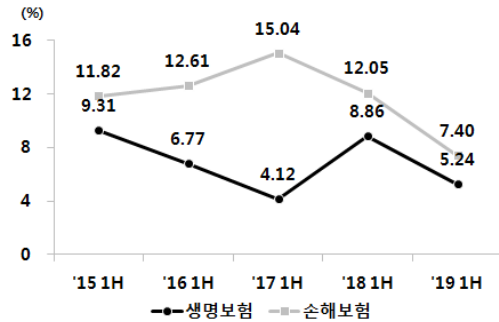
-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ROA와 ROE는 모두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하여 2018년 상반기 대비 하락함
-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의 ROA는 0.48%로 전년 동기보다 0.27%p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산업의 ROA는 0.97%로 전년 동기보다 0.53%p 하락함
-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보다 3.62%p 하락한 5.24%를, 손해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보다 4.65%p 하락한 7.40%를 나타냄

〈그림 68〉 보험산업 ROA



주: ROA는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9〉 보험산업 ROE



주: ROE는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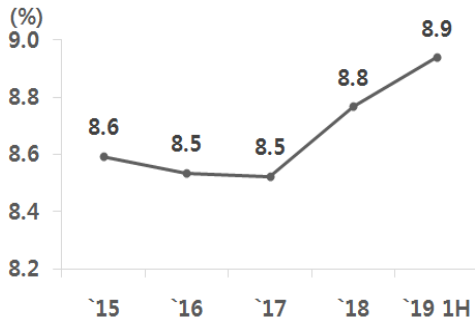
다. 보험영업이익 관련 지표

1) 생명보험

■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신규 판매 부진, 수입보험료 감소 등으로 해지율, 사업비율, 보험금 지급률이 모두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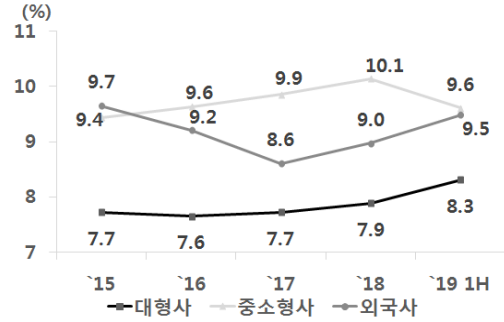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의 해지율은 가계부채 부담 확대로 해지액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전년 대비 0.3%p 상승한 8.8%를 기록하였고, 2019년 상반기에는 8.9%까지 상승함
- 생명보험산업의 사업비율은 2018년 13.6%에서 2019년 상반기 14.5%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보장성보험의 신규 판매 사업비가 소폭 증가하고 보험료 수입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수입보험료는 감소함에 따라 2016년 59.8%에서 2019년 상반기 85.6%까지 상승함
- 한편, 외국사의 해지율의 경우 2019년 상반기 다른 그룹의 해지율과 달리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외국사의 신계약액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70〉 생명보험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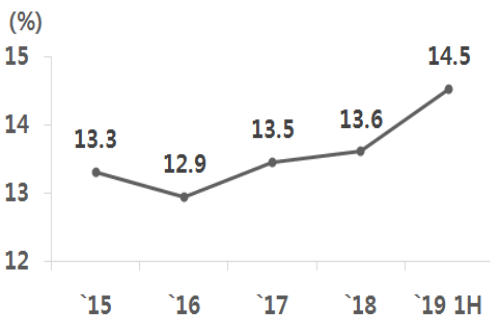
주: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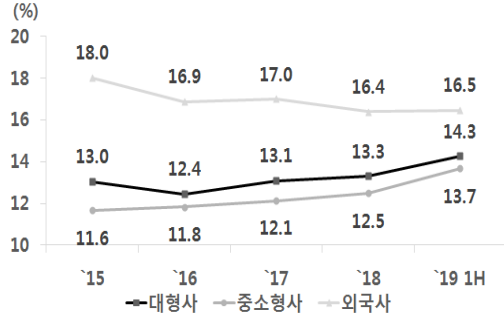
주: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2〉 생명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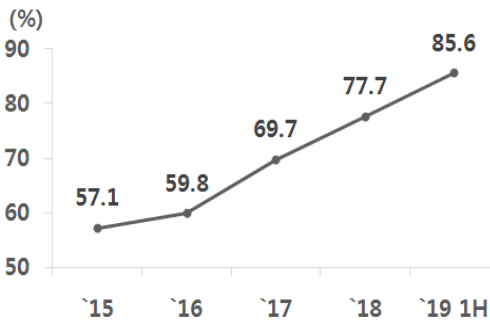
주: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3〉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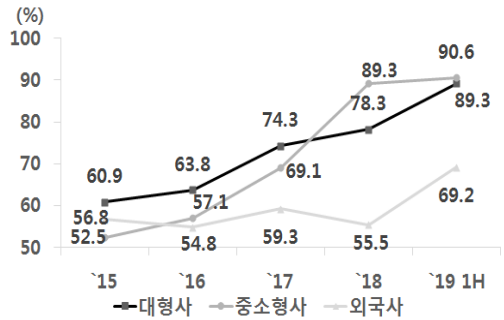
주: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4〉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주: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금 지급률



주: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 2019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동반 상승으로 인해 크게 악화됨(2016년: 100.9% → 2019년 상반기: 1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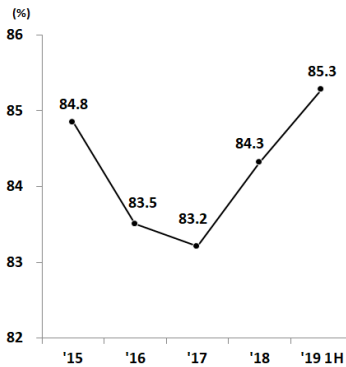
○ 2019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2018년보다 1.0%p 상승한 85.3%를 나타냄

-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7년 80.9%에서 2018년 86.4%로 상승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전년보다 1.1%p 상승한 87.5%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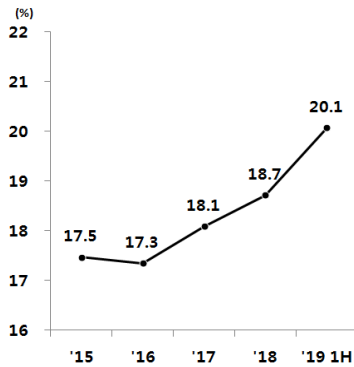
○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의 신규 판매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2016년 17.3%에서 2019년 상반기 20.1%까지 상승함

○ 특히,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합산비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사업비 증가,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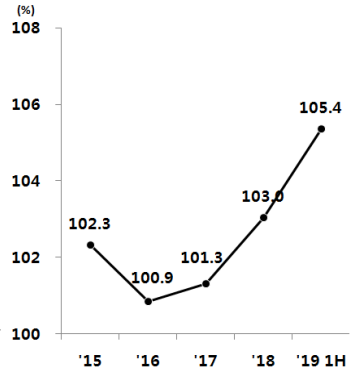
〈그림 76〉 손해보험 손해율



〈그림 77〉 손해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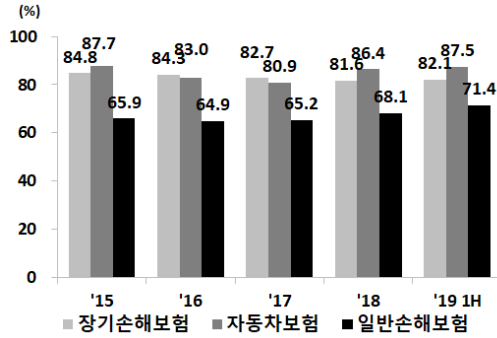


〈그림 78〉 손해보험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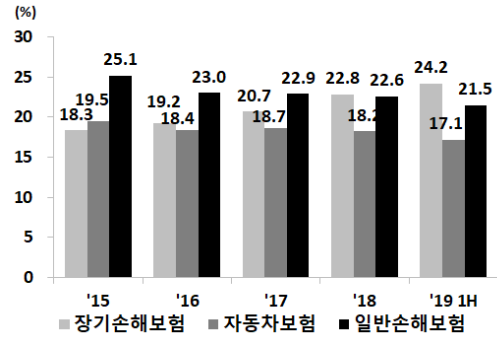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9〉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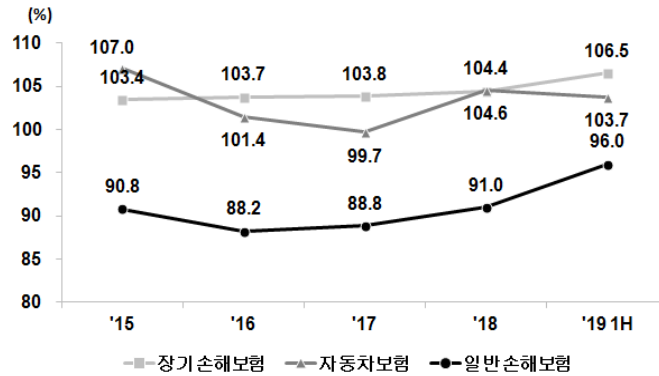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0〉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1〉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투자영업이익의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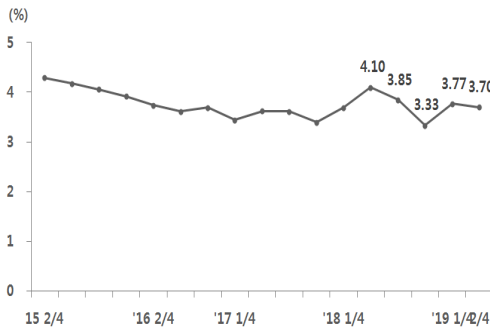
1) 운용자산이익률

■ 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2018년 상반기에는 주식 처분 이익 확대로 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바 있으며, 2019년 들어서는 채권 처분 이익 확대로 운용자산이익률이 전년 말에 비하여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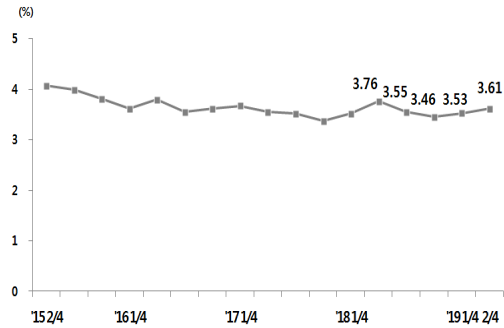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생명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보다 0.4%p 하락한 3.7%, 손해
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보다 0.15%p 하락한 3.61%를 나타냄

〈그림 82〉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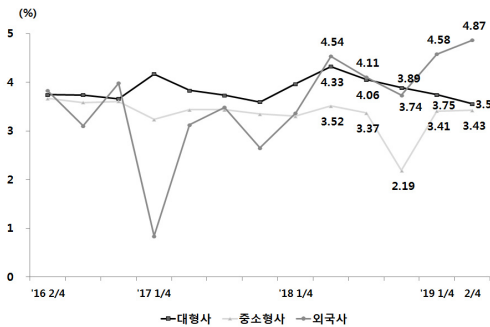
〈그림 83〉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생명보험의 경우 국내 중소형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국내 중소형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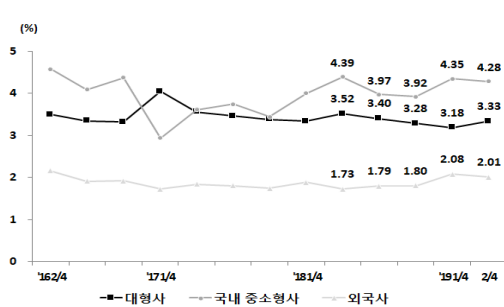
〈그림 84〉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준운용자산 × 연 기준 환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5〉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준운용자산 × 연 기준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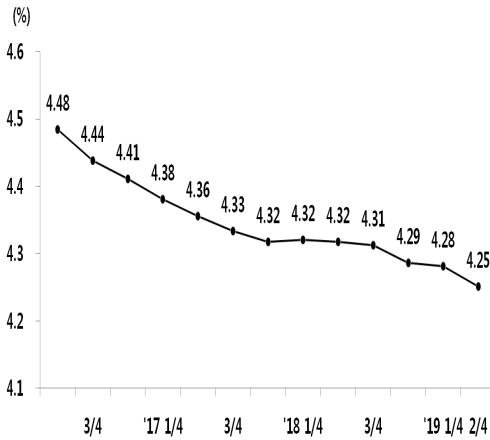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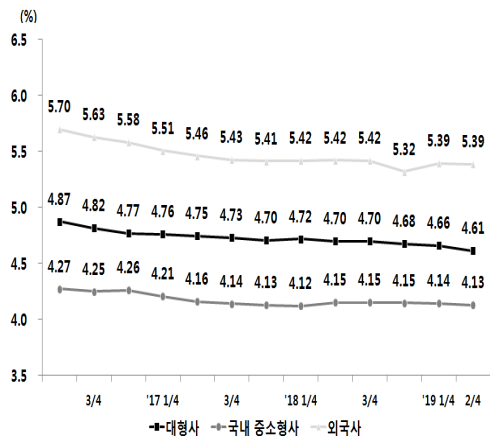
-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는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2016년 2/4분기 4.48%에서
2019년 2/4분기 4.25%까지 하락함

- 다만,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는 3% 중·후반의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외국사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적립금의 평균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임

〈그림 86〉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그림 8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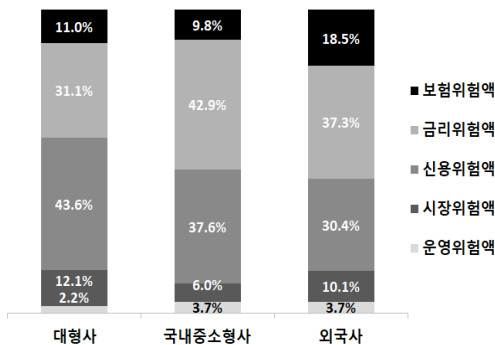
주: 평균 금리 = (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 적용 금리수준의 중간 값) / 총 보험료 적립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리스크⁸⁾

가.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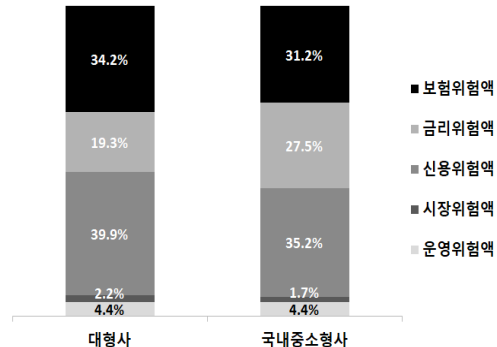
-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 모두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의 비중이 각각 40.2%, 38.5%로 가장 높지만,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회사 유형별로 각 리스크 비중이 상이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 비중이 43.6%인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금리위험 비중이 각 42.9%, 37.3%로 가장 높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모두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과 보험위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임

〈그림 8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8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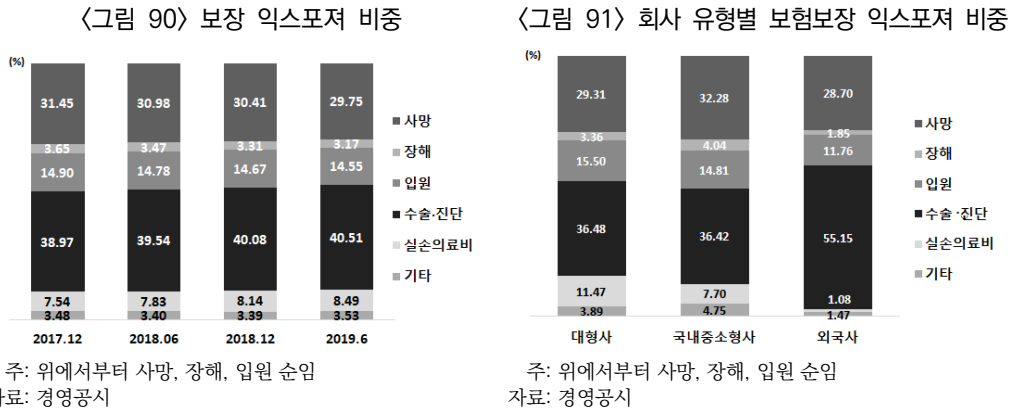
나. 보험리스크

1)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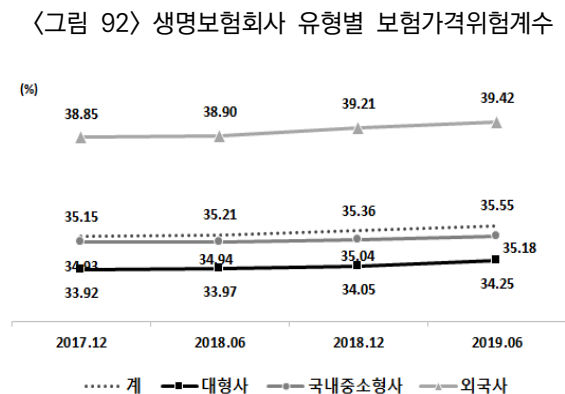
-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저 중 수술·진단,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한 반면 사망, 장애,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8) 본장은 반기마다 자세히 공시되는 위험관리 부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이번 호에서는 2018년 말 공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함

- 수술·진단과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0.97%p, 0.66%p 상승한 반면, 사망, 장애, 입원 보장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23%p, 0.30%p, 0.23%p 하락함
- 외국사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비해 수술·진단 보장 비중이 55.15%로 큰 편이고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은 1.08%로 작은 편임



-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4%p 상승한 35.55%를 기록함
- 외국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52%p 상승한 39.42%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형사(0.28%p)와 중소형사(0.24%p)는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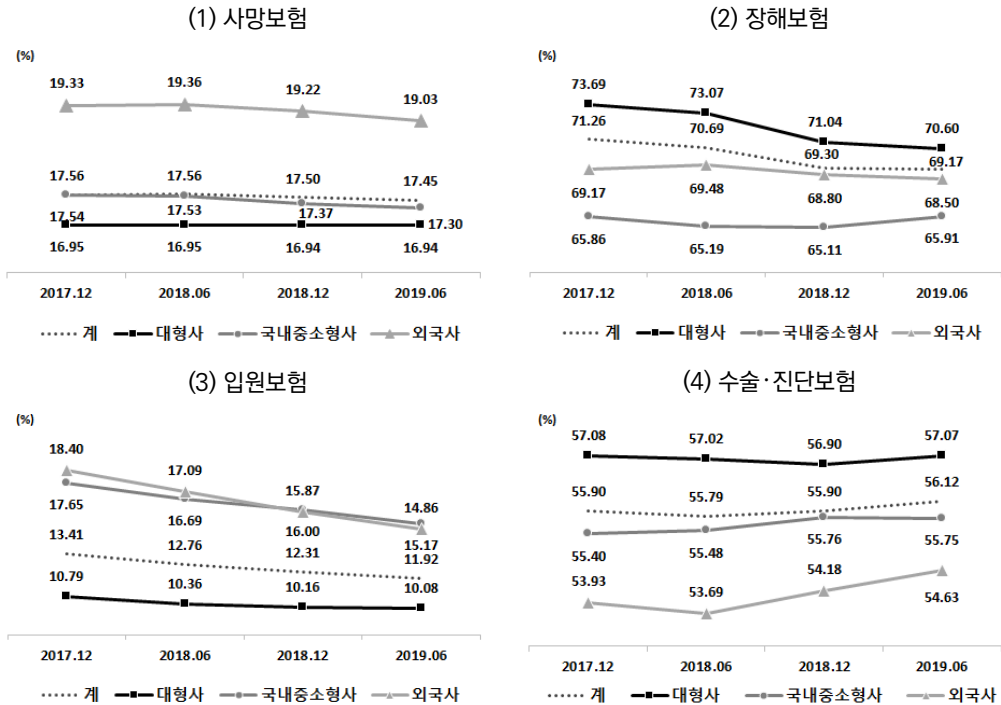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사망, 장애, 입원 보장 리스크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반면, 실손의료비 보장 리스크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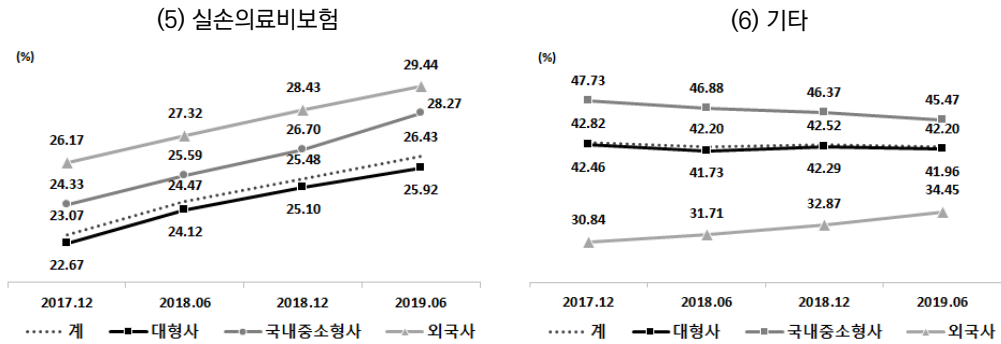
- 사망과 장애, 입원 보장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1%p, 1.52%p, 0.84%p 하락한 17.45%, 69.17%, 11.92%를 나타냄
- 실손의료비 보장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6%p 상승한 26.43%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 대형사(1.80%p)에 비해 중소형사(2.68%p)와 외국사(2.12%p)의 증가세가 가파름
- 대형사의 경우 장애 보장 보험가격위험계수의 하락폭이 2.47%p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입원 보장 보험가격위험계수의 하락폭이 각각 1.52%p, 2.23%p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장애 보장 보험가격위험계수의 경우 중소형사는 전년 대비 0.72%p 상승한 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하락하여 회사 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

〈그림 93〉 보험 보장별 보험가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93〉 계속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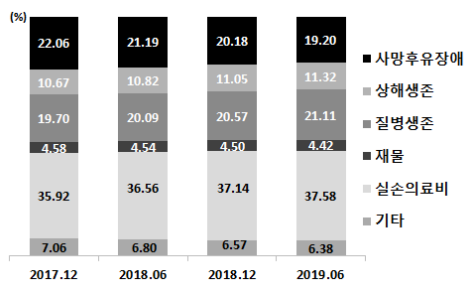
2) 손해보험

가) 장기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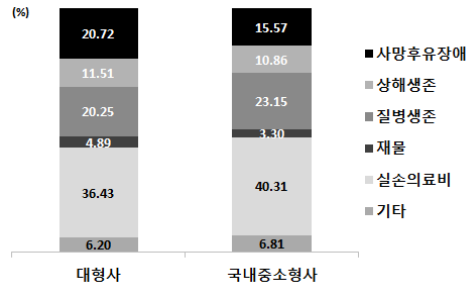
■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저 중 상해생존, 질병생존,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한 반면 사망후유장애, 재물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 실손의료비와 질병생존 보장 비중의 상승폭이 1.02%p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사망후유장애 비중의 하락폭이 1.99%p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중소기업사의 경우 대형사에 비해 실손의료비 비중이 40.31%로 큰 편이고 사망후유장애 비중은 15.57%로 작은 편임

〈그림 94〉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 〈그림 95〉 회사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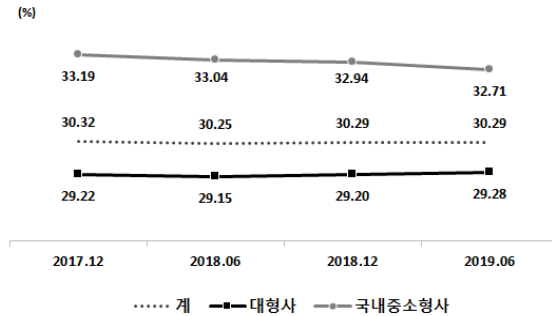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순임
자료: 경영공시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한 30.29%를 나타냄

○ 대형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13%p 상승한 29.28%를 나타낸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0.33%p 하락한 32.71%를 나타냄

〈그림 96〉 회사 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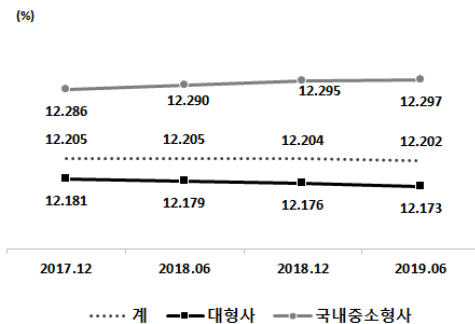
■ 실손의료비 보험가격위험계수는 하락세인 반면 상해생존과 질병생존, 재물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며 보장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상이한 모습이 나타남

○ 손해보험산업은 생명보험산업과 다르게 실손의료비 보장 리스크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사(-2.21%p)의 하락폭이 대형사(-0.86%p)보다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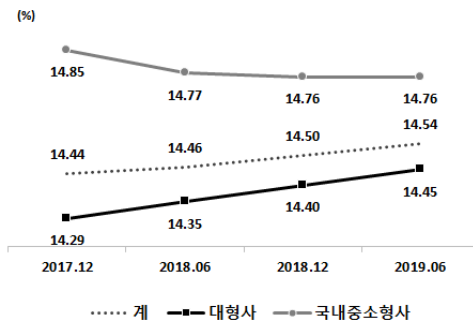
○ 대형사의 경우 사망후유장애 보험가격위험계수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 상해생존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중소형사의 경우 이와 반대의 추세를 보임

〈그림 97〉 장기손해보험 보장별 보험가격위험계수

(1) 사망후유장애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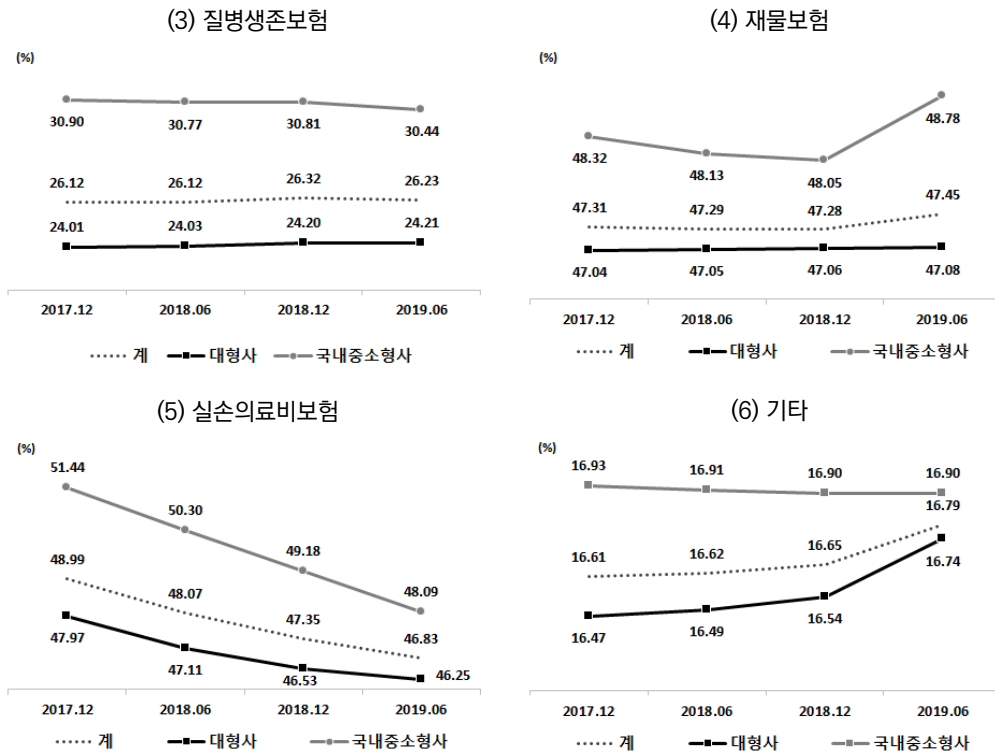


(2) 상해생존보험



자료: 경영공시

〈그림 97〉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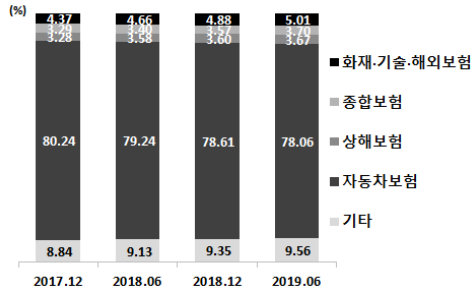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나) 자동차·일반손해보험

■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저]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는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보험의 익스포저는 상승함

-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18%p 하락한 78.06%를 나타냈으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상해보험은 각각 0.35%p, 0.30%p, 0.09%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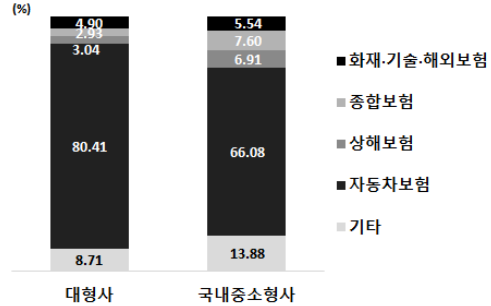
〈그림 98〉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1)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2) 기타에는 해상보험, 근제·책임보험, 기타일반보험, 외국인보험이 포함됨

자료: 경영공시

〈그림 99〉 회사 유형별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1)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2) 기타에는 해상보험, 근제·책임보험, 기타일반보험, 외국인보험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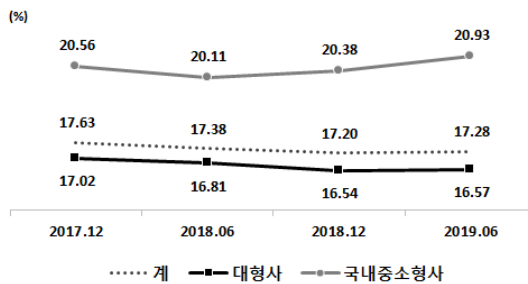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보험가격위험계수]** 2019년 상반기 자동차·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함

○ 보험가격위험계수는 2018년 상반기 17.38%에서 2019년 상반기 17.28%로 0.1%p 하락함

○ 대형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24%p 하락한 반면, 중소형사는 0.82%p 상승함

〈그림 100〉 회사 유형별 자동차·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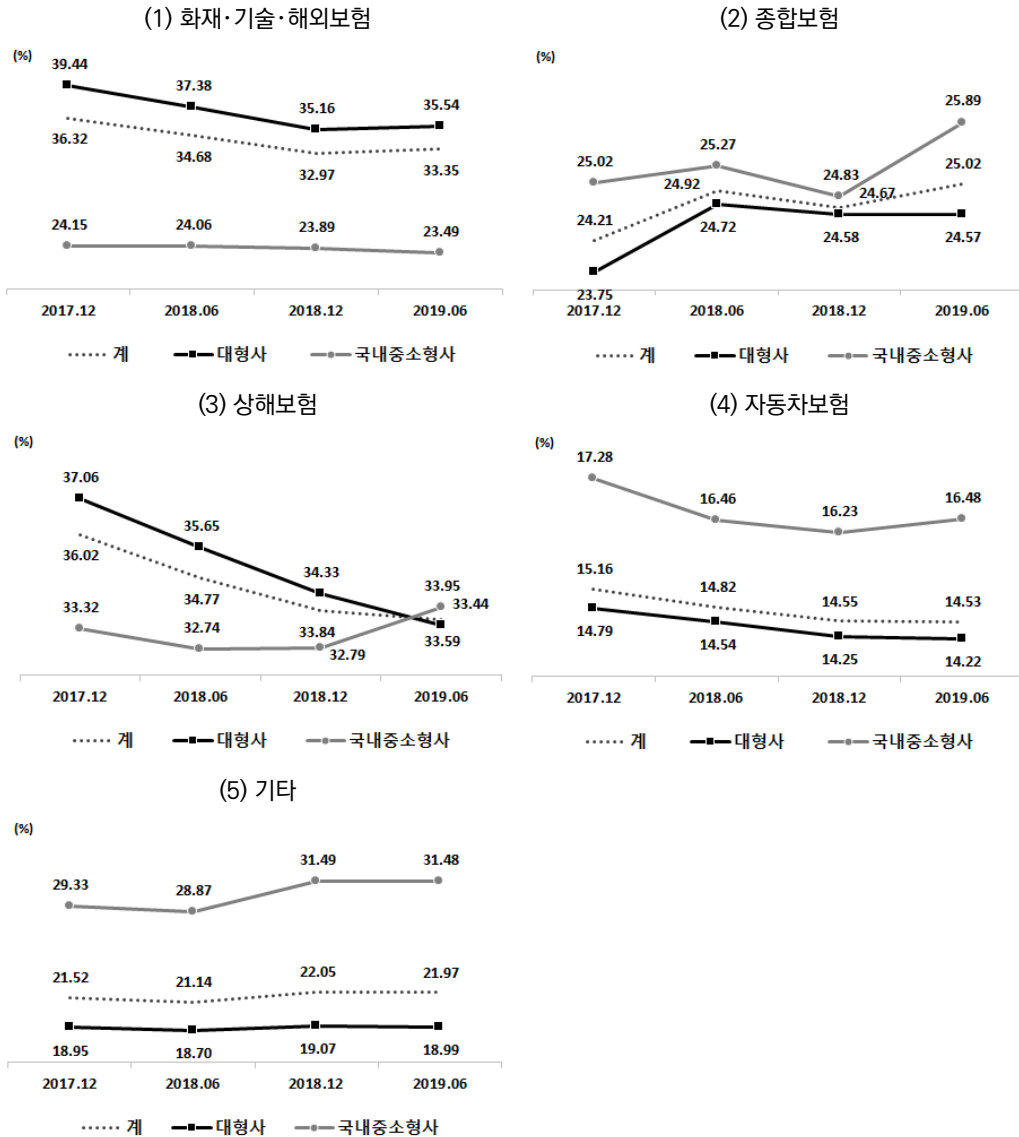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보험가격위험계수]** 종합보험을 제외한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종목별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전년 대비 모두 하락함

○ 중소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매출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폭 확대되었으나 대형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32%p 하락하여 리스크가 축소됨

- 또한 상해보험 보험가격위험 계수는 중소형사의 단체상해보험 매출 확대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대형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하락세를 견인함

〈그림 101〉 자동차·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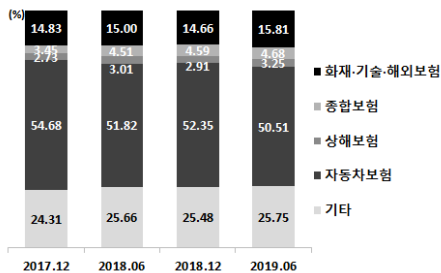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지급준비금위험 익스포저]**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감소한 반면,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상해보험 익스포저 비중은 모두 증가함

○ 자동차보험 익스포저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31%p 하락한 50.51%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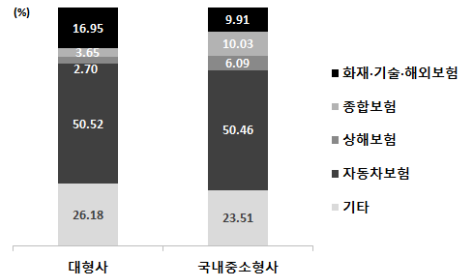
○ 회사 유형별로 보면, 대형사는 중소형사에 비해 화재·기술·해외보험 비중은 높고 종합보험 비중은 낮은 편임

〈그림 102〉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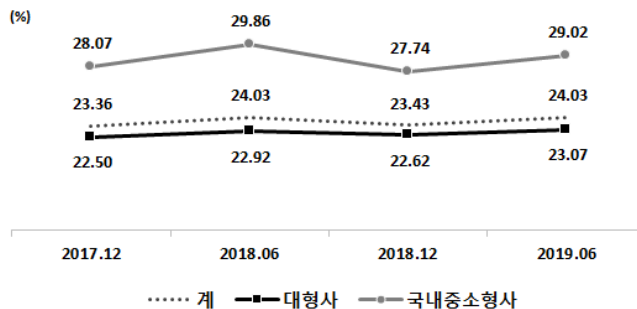
〈그림 103〉 회사 유형별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자료: 경영공시

■ **[지급준비금위험계수]** 2019년 상반기 지급준비금위험계수는 대형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하락함

〈그림 104〉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지급준비금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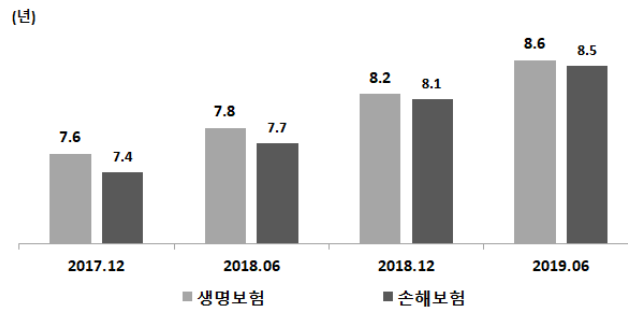
다. 자산리스크

1) 금리위험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은 향후 도입될 회계제도에 대응하여 자산듀레이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산업의 금리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산듀레이션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0.8년 확대시킴

〈그림 105〉 자산듀레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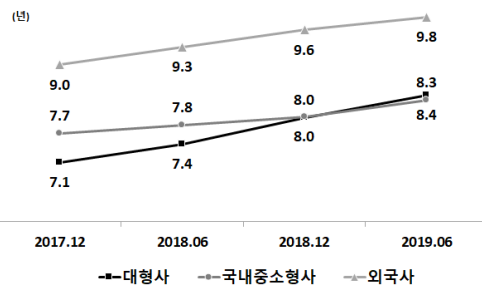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생명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형사가 자산듀레이션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중소형사가 자산듀레이션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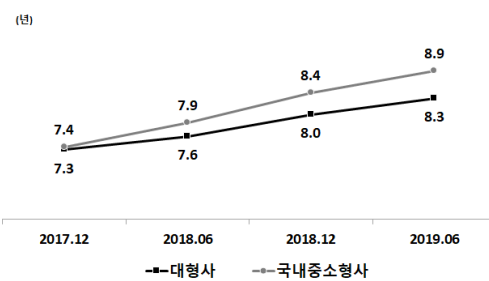
○ 생명보험 대형사는 자산듀레이션을 전년 동기 대비 0.9년 확대시켰으며 손해보험 중소형사는 1.0년 확대시킴

〈그림 106〉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07〉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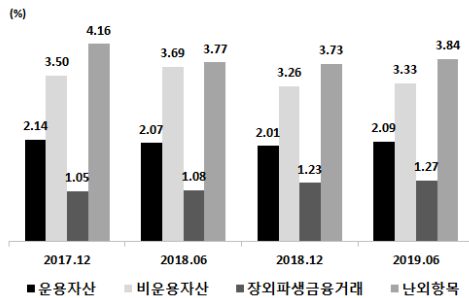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2) 신용위험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각 자산의 신용위험계수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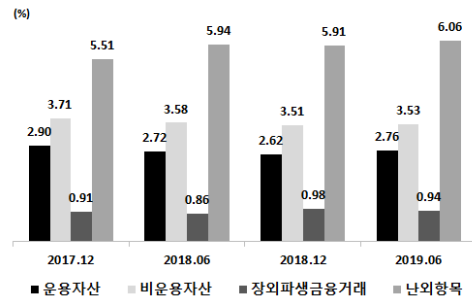
○ 비운용자산의 신용위험계수는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36% 하락한 3.33%,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전년 대비 0.05%p 하락한 3.53%를 나타냄

〈그림 108〉 생명보험 신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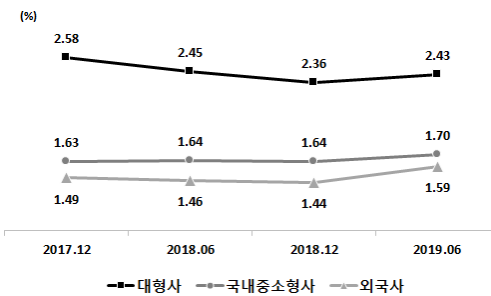
〈그림 109〉 손해보험 신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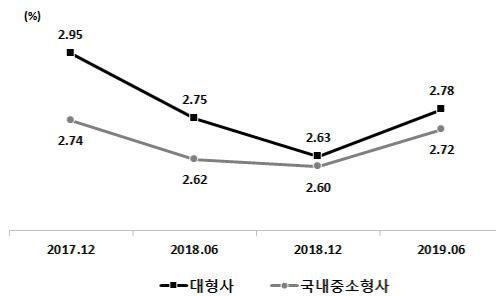
■ 생명보험 대형사의 경우 전년 동기에 비해 신용위험계수가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상승하였고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모두 상승함

〈그림 11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1〉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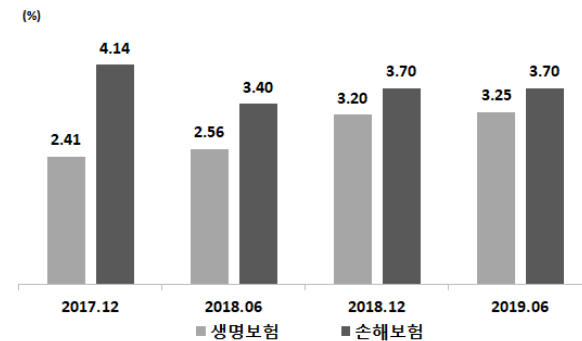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3) 시장위험

- 2019년 상반기 시장위험계수는 2018년 상반기에 비해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모두 상승함
- 생명보험회사는 저금리 장기화와 주가, 환율의 변동성으로 변액보험 보증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단기매매증권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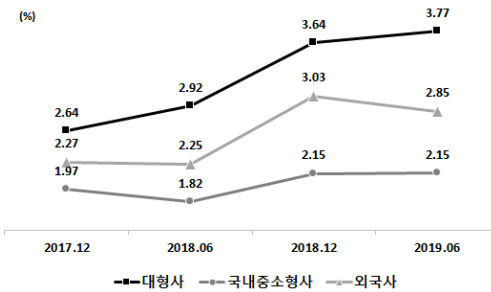
〈그림 112〉 시장위험계수 추이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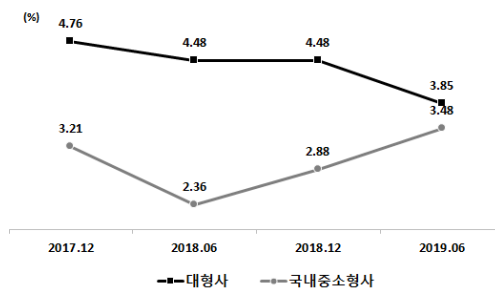
- 손해보험 중소형사의 경우 시장위험계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반면, 대형사는 대폭 증가함

〈그림 113〉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4〉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4. 시장경쟁

가. 시장점유율

1)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 최근 5년 동안의 그룹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확대한 반면, 국내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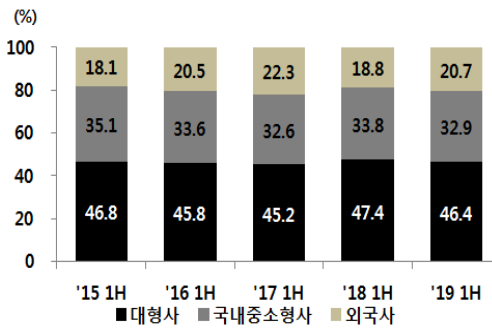
○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15년 상반기 18.1%에서 2019년 상반기 20.7%로 확대됨

○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35.1%에서 32.9%로 축소됨

■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2019년 상반기 외국사의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대형사와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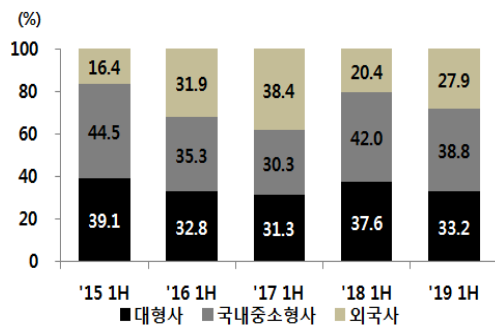
○ 이는 일부 외국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의한 보장성보험 신규 판매 확대에 기인함

〈그림 11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6〉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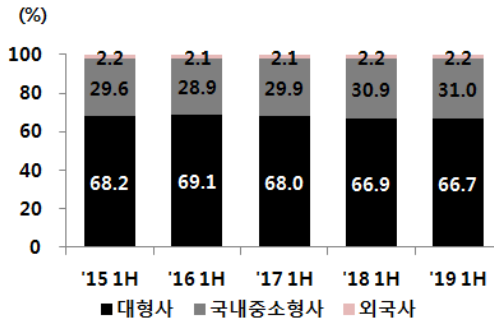
■ 최근 5년 동안의 그룹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축소되고 국내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음

○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15년 상반기 68.2%에서 2019년 상반기 66.7%로 축소된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중소형사의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9.6%에서 31.0%로 확대됨

■ 장기손해보험의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을 보면, 2018년과 2019년 상반기 국내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대형사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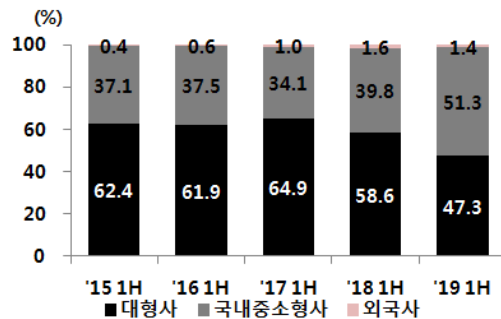
○ 이는 국내 중소형사의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의 판매 경쟁 확대에 기인함

〈그림 11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8〉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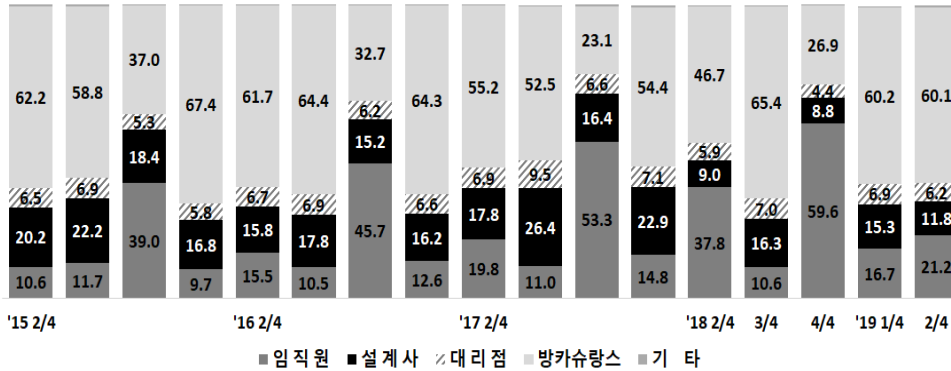
나. 판매채널

1) 생명보험 판매채널

■ 생명보험 방카슈랑스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2017년 들어 50%대로 축소되었으나 2018년 3/4분기 부터 다시 60%대를 회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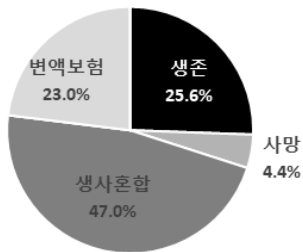
○ 한편, 임직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퇴직연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19〉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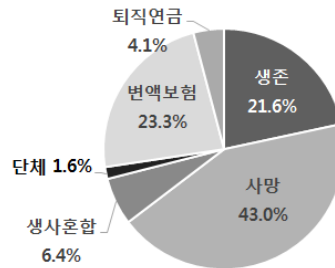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20〉 방카슈랑스 채널 종목별 비중
(2019년 2/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21〉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2019년 2/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손해보험 판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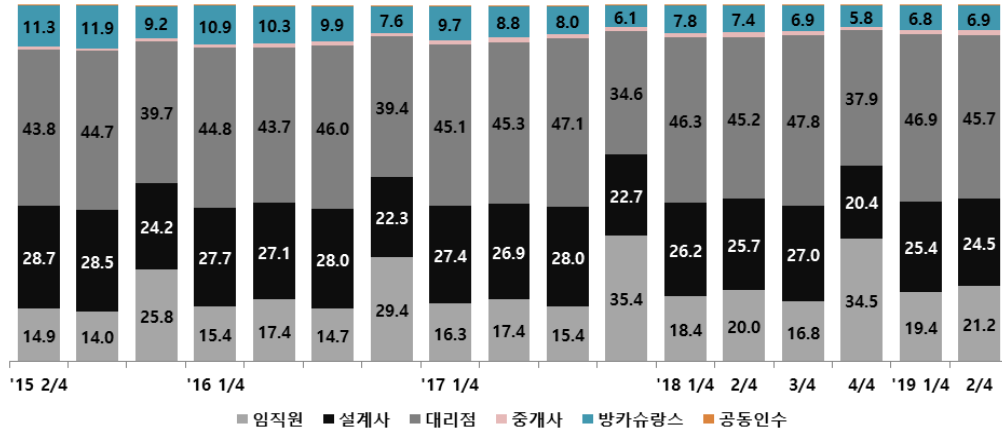
■ 손해보험의 경우 대리점과 임직원 채널이 판매한 원수보험료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이 판매한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 대리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2015년 2/4분기 43.8%에서 2019년 2/4분기 45.7%로 확대됨

○ 반면, 같은 기간 설계사와 방카슈랑스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각각 28.7%, 11.3%에서 24.5%와 6.9%로 축소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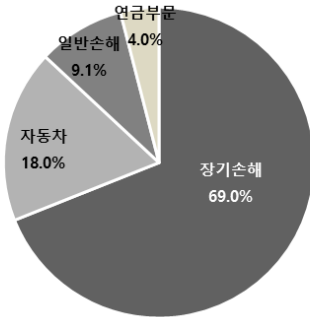
○ 한편,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의하여 임직원 채널이 판매한 원수보험료 비중은 확대되고 있음

〈그림 122〉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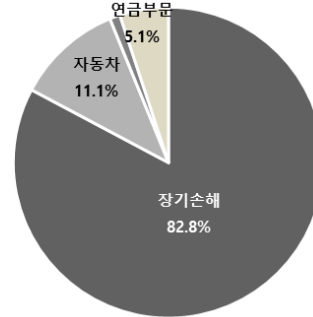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23〉 대리점 채널 종목별 비중 (2019년 2/4분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24〉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2019년 2/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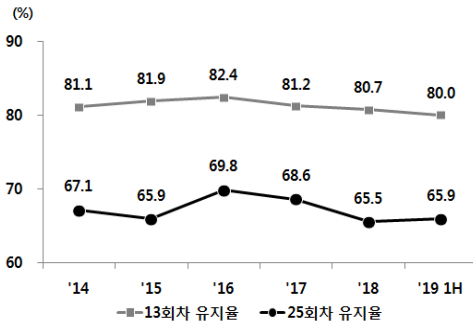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보험계약 관리

■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의 13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이 전년에 비하여 소폭 하락한 반면, 손해보험산업의 13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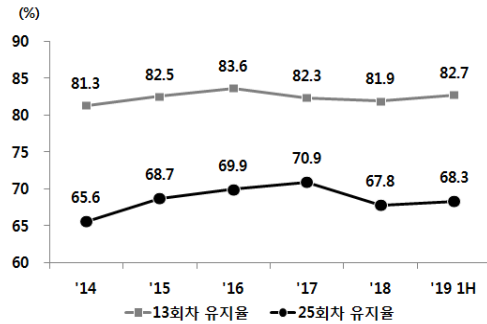
○ 한편, 2019년 상반기 25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에 비하여 소폭 상승함

〈그림 125〉 생명보험 계약유지율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그림 126〉 손해보험 계약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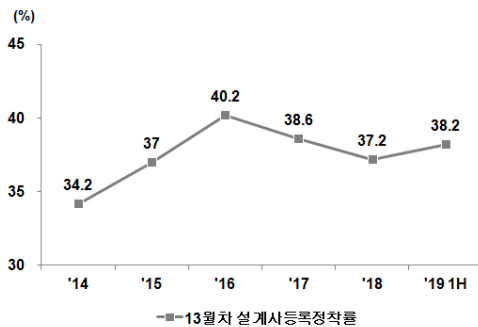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모두 전년에 비하여 소폭 상승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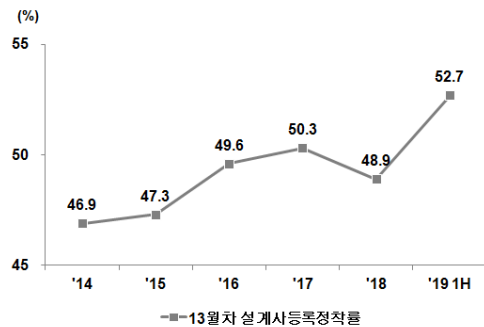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2016년 이후, 손해보험의 경우 2017년 이후 설계사 등록 정착률이 하락하였으나, 2019년 들어 상승 전환됨

〈그림 127〉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정착률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그림 128〉 손해보험 설계사 등록 정착률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Ⅲ. 해외보험 동향

- 미국 개인연금보험은 2018년 주요 경제지표 및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회복함
 - 시중금리 상승과 판매 관련 규제가 철회되면서 정액연금이 크게 증가하고 주식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도 소폭 성장함
 - 개인연금보험 중 지수형 연금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수익을 보장하면서도 투자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이 제공되는 특성 때문임
- 영국의 경우 2015년 연금자유화 이후 종신연금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보험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하이브리드형 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 연금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수령인의 종신연금 선택 건수는 80% 감소하였고 시장 위축에 따라 8개 종신연금 판매회사가 시장에서 철수함
 - 보험회사들은 종신연금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2015년 이후 연금과 정기인출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연금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요는 제한적임
- 2018년 일본 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률은 19.6%로 나타났으며, 저연령의 가입과 소액 연금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9세 이하의 연금보험 가입률은 연평균 13.9% 증가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납입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의 경우 소액계약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중국의 연금보험제도는 기본양로보험,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포함한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연금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개인연금 가입자 수는 1.1억 명으로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
 - 중국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과세방식을 조정하고 외국자본의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함

1. 미국 연금시장¹⁾

■ 2018년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주요 경제지표 및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2017년 대비 약 300억 달러 증가하며 3년 연속 하락세에서 반등함(<그림 1> 참고)

- 2018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네 차례²⁾ 인상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한 반면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함
-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정액형 연금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식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 판매도 소폭 증가함
- 한편 연금보험 판매채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던 투자 자문 윤리법(Fiduciary Rule)³⁾이 2018년 6월 21일 철회되면서 연금보험 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변액연금은 2011년 이후 주식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2018년에는 7년 만에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생존보장(Guaranteed Living Benefit, 이하 'GLB'라 함)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임

- 1990년대 이후 변액연금 판매는 주식시장 상황과 정의 관계를 보여 왔으나, 2000년대 부터 금리수준에 연동하는 생존보장(GLB)이 보편화되면서 금리수준의 영향이 확대됨
 - 변액연금에 추가되는 생존보장(GLB) 옵션은 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 또는 가입기간이 일정 시간 경과될 때까지 생존한 경우, 적립금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옵션임⁴⁾
- 2012년 이후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면서 생존보장(GLB) 금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활황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 판매는 감소해 왔음
- 2018년 S&P 500 지수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2017년 대비 대폭 하락하였으나 생존보장(GLB) 금액이 높아지면서 변액연금 판매는 소폭 증가함

1) 미국 보험산업 이슈는 LIMRA(2019. 6. 1), "U.S. Individual Annuities: 2018 Year in Review"를 참고함

2)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2018년 3월 22일(1.25% → 1.50%), 6월 14일(1.50% → 1.75%), 9월 27일(1.75% → 2.00%), 12월 20일(2.00 → 2.25%)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함

3) 미국 노동부가 2016년 6월 부분적으로 시행한 규정으로 고령층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 상품에 대해 자문과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강화한 조치임

4) 권용재·장동식·서성민(2010. 6),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 연구』,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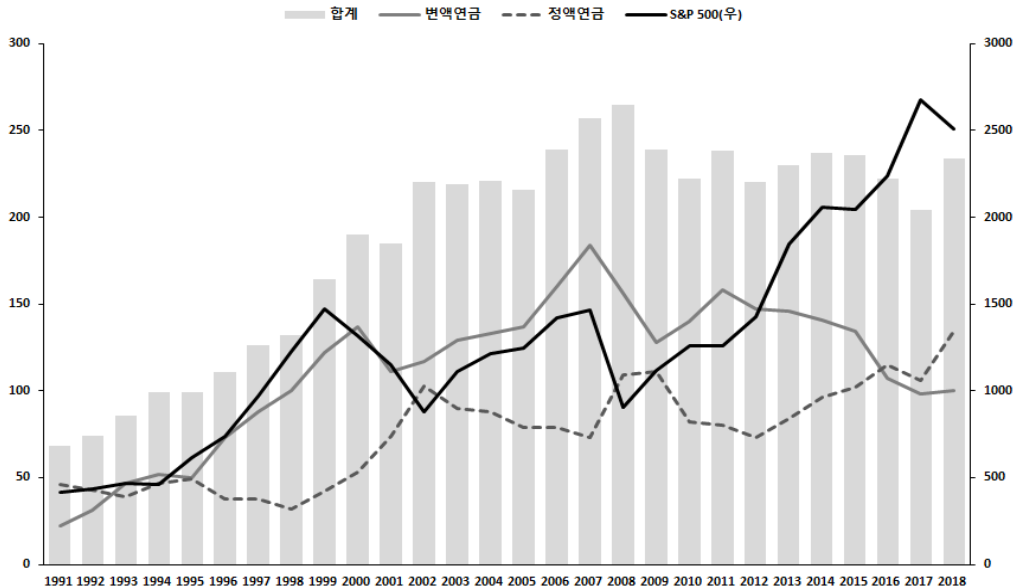
■ 2018년 정액연금(Fixed Annuity) 판매는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판매 규제가 완화되면서 2017년 대비 27% 증가한 1,33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변액연금 판매를 상회함

- 미국의 정액연금은 지수형 연금(Fixed Indexed Annuity), 이연 연금(Fixed-Rate Deferred Annuity), 즉시연금(Fixed Immediate Annuity), 장수연금(Deferred Income Annuity)⁵⁾ 등을 포함함
- 투자 자문 윤리법(Fiduciary Rule) 철회에 따라 독립 설계사(Independent Agent)의 판매 위축이 해소되면서 특히 독립 설계사 판매 비중이 높은 지수형 정액연금 판매가 크게 확대됨
-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정액형 이연 연금(Fixed-Rate Deferred Annuity)과 일시납(SPIA, 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 즉시연금의 판매가 확대됨
 - 2018년 일시납 즉시연금 판매액은 2017년 대비 140만 달러 증가한 97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18년 내 최대 판매액을 기록함
- 반면 장수연금 판매는 지수형 연금, 이연 연금, 즉시연금 등 다른 정액연금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1993년 이후 변액연금이 정액형 연금을 꾸준히 앞서 왔으나 최근 3년간 변액연금의 부진으로 정액연금의 판매가 변액연금을 상회함

5) 장수연금은 보험 가입자가 퇴직시점에서 자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연금 지급시점을 85세 등 고연령에서 시작하는 것이 특징임

〈그림 1〉 미국 개인연금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및 S&P 500 지수 추이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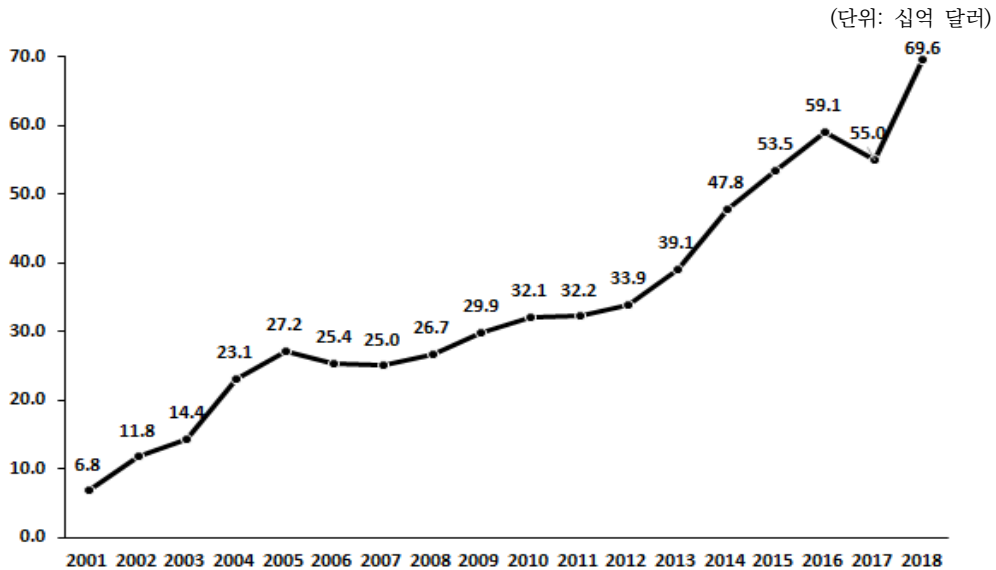


자료: LIMRA(2019. 6. 1), "U.S. Individual Annuities: 2018 Year in Review"

■ 2012년 이후 정액연금의 성장을 이끌어 온 지수형 연금(Fixed Indexed Annuity, 이하 'FIA'라 함) 판매는 2018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지수형 연금(FIA) 판매는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액연금으로서의 최저 수익 보장과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수익 확보라는 상품특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생존보장(GLB)에 대한 수요도 확대됨
- 지수형 연금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200% 이상 증가하며, 2018년 말 기준 개인연금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달성함
 - LIMRA는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어 지수형 연금의 시장점유율이 향후 5년 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지수형 연금 판매 증가 요인은 생존보장(GLB) 제공 및 사망 질병 보장 축소에 따른 보험료 하락 등임
- 한편 지수형 연금(FIA)의 판매채널은 독립 설계사(Independent Agent)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 자문 윤리법(Fiduciary Rule) 철회에 따른 판매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남

〈그림 2〉 미국 지수형 연금 신규보험료 추이



자료: LIMRA(2019. 6. 1), "U.S. Individual Annuities: 2018 Year in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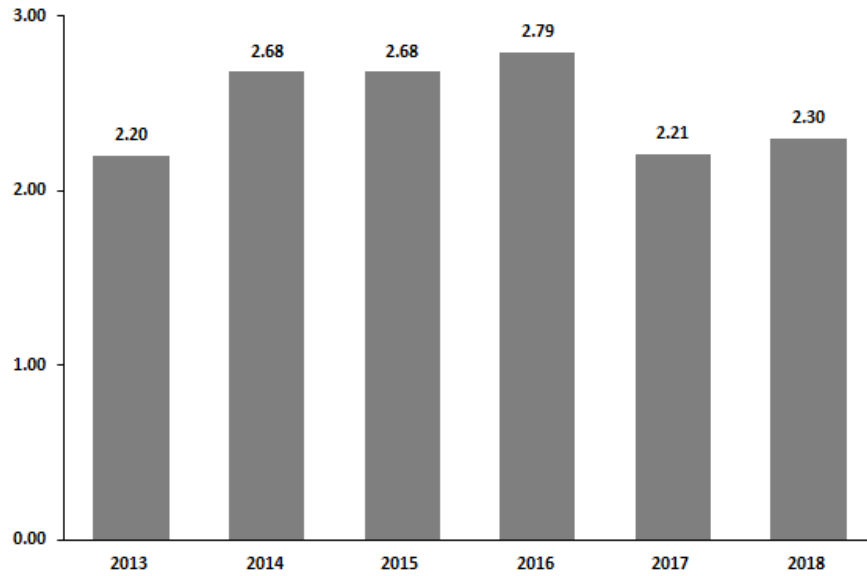
■ 한편 장수연금 판매는 저금리 기조 및 규제완화 등 장수연금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상황이 주어졌지만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

○ 한편 적격장수연금(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s, 이하 'QLAC'라 함)은 장수연금 신규보험료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3억 3천억 달러로 최대 판매를 기록한 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8년 약 1억 7천억 달러를 기록함

- 적격장수연금(QLAC)은 직장 은퇴저축플랜 또는 전통적인 IRA 등 세금 유예 은퇴저축플랜에서 가입 가능함. 평균 가입 연령은 70세, 평균 연금 수령 연령은 81세로 연금 수령시기를 고연령으로 늦추면서 일반 연금에 비해 보험료가 40% 가량 저렴하고, 연금 수령기간을 단축시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그림 3〉 미국 장수연금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LIMRA(2019. 6. 1), "U.S. Individual Annuities: 2018 Year in Review"

2. 영국 연금시장

■ 영국은 2015년 4월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s Rules)를 실시하면서 퇴직연금의 종신 연금 수령의무를 폐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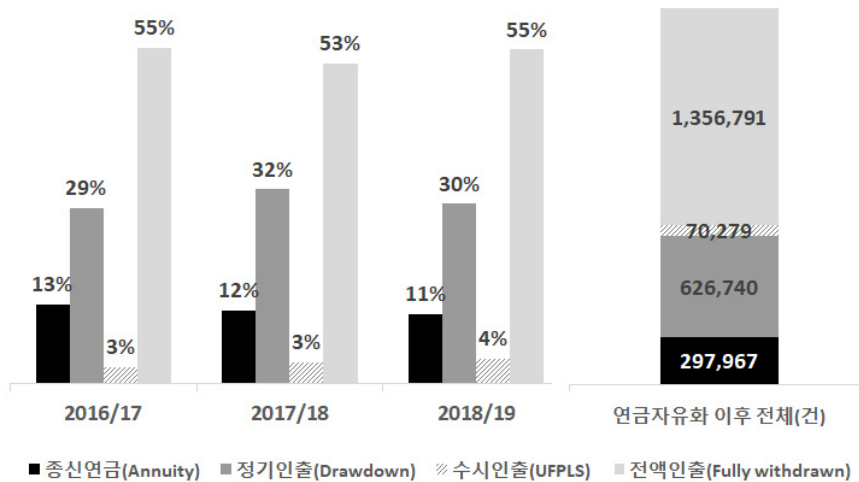
○ 연금자유화는 55세 이후 퇴직연금 수령 시 비과세 적용 초과분인 75%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임

- 연금자유화 이전에는 일시금 수령 시 최대 55%까지 과세하여 일시금 인출방식을 제한하였음

○ 연금자유화는 퇴직연금 수령인에게 연금 상품 선택자유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연금자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음

○ 연금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수령인은 종신연금(Annuity), 정기인출(Drawdown), 수시인출(UFPLS),⁶⁾ 전액인출(Fully withdrawn, Full cash withdrawal) 중 선택하게 됨

〈그림 4〉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



자료: FCA(2019. 9. 25),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18/19"

6) 수시인출(UFPLS: Uncrystallised Funds Pension Lump Sum)은 연금자유화 이후 도입된 상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한 없이 인출 가능하나 일시금 인출 시 마다 비과세 적용 초과분은 종합과세됨(정원석(2016. 10. 17), 「영국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 이후 가입자 행태」, 『KIRI 리포트』를 참고함)

■ 연금자유화 이후 퇴직연금 수령인의 대부분이 인출방식을 선호하면서 종신연금 신규판매는 시장의 예상대로 크게 축소되었음

○ 2015년 4월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에 대한 종신연금 선택 비중은 90%였지만, 연금 자유화 실시 후 선택 비중은 10%대로 크게 하락하였음

- 이에 반해 퇴직연금 수령인의 절반 이상이 전액인출을 선택하였고, 정기인출을 선택한 비중은 30%대였음

○ 또한 연금자유화 이전 종신연금 선택 건수는 연간 35만 건이었던 반면, 2018~2019년⁷⁾ 종신연금 선택건수는 73,977건으로 80% 가량 감소함

- 2018~2019년 연간 선택 건수는 전액인출이 35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인출 19만 건, 수시인출은 2만 건으로 집계됨

○ 종신연금 수요 감소로 2018년까지 종신연금 판매회사 중 8개사가 시장에서 철수하였음

- 최근 종신연금시장은 매우 집중되어있어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80%인 것으로 조사됨

- 이와 대조적으로 정기인출 판매회사는 100개 이상으로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0.5%에 그침

■ 영국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에서 전액인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소규모 적립금이 많고, 수령연령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수령방식의 전액인출 선호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수령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졌음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적립금의 40%가 1만 파운드 미만이며 이 경우 거의 90%가 전액인출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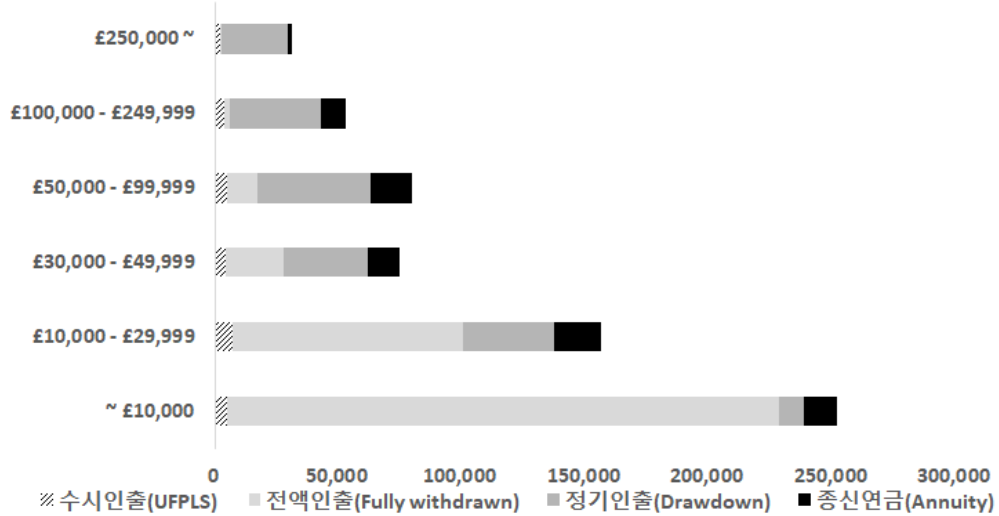
- 고액인 10만 파운드 이상의 적립금 규모에서는 75%가 정기인출을 선택하였고 전액인출은 거의 선택하지 않음

○ 퇴직연금 수령인의 연령별 구성은 55~64세가 70%를 차지하며 이들 연령의 대부분이 전액인출 또는 정기인출을 선택함

7) 2018년 4월~2019년 3월 기준임

〈그림 5〉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별 수령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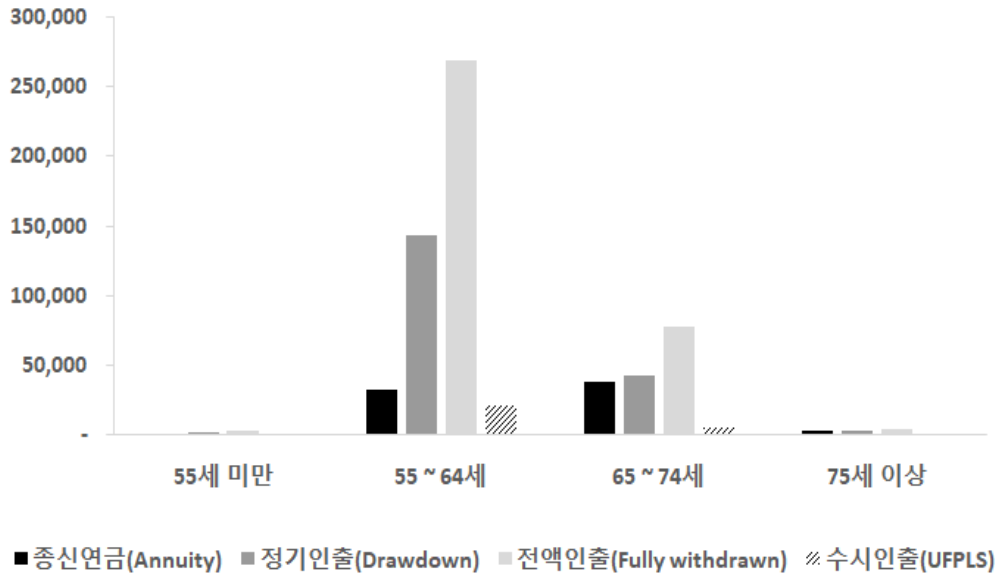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FCA(2019. 9. 25),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18/19"

〈그림 6〉 퇴직연금 적립금 연령별 수령방식

(단위: 건)



자료: FCA(2019. 9. 25),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18/19"

■ 퇴직연금 수령인의 48%가 무자문서비스를 선택하여 자문서비스시장 확대 전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상품 선택 시 무자문서비스 비중이 상당히 높아 종신연금 45%, 수시인출 46%, 전액인출은 62%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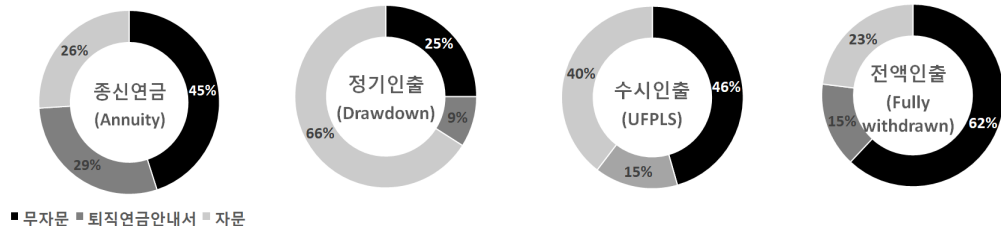
○ 정기인출은 투자 상품을 통해 수익률을 기대하는 일종의 투자위험이 있는 펀드상품으로 자문서비스 선택 비중이 가장 높은 66%로 나타났음

- 그러나 정기인출의 무자문서비스(정부의 퇴직연금안내서비스 포함)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영국 FCA는 해당상품 가입자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함

○ 또한 자문서비스 선호율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여 적립금 규모가 자문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0만 파운드 이상일 때 70%가 자문서비스를 선택하였고, 1만 파운드 미만에서는 20%만이 자문서비스를 선택함

〈그림 7〉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별 자문유형



자료: FCA(2019. 9. 25),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18/19"

■ 연금자유화 이후 영국 종신연금시장은 축소되었으나 향후 연금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종신 연금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기대됨

○ 영국 종신연금시장은 수요 감소와 저금리에 따른 연금 상품 운용부담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이 위축되었음

- 종신연금시장 축소는 퇴직연금 수령인의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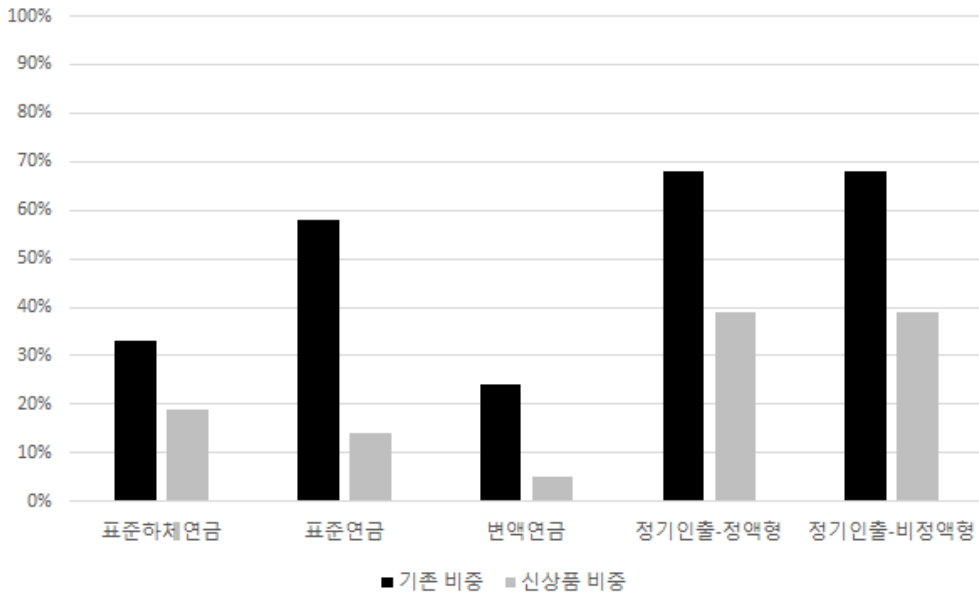
○ 그러나 퇴직연금 수령의 지속적인 증가와 종신연금 기대수요로 인해 향후 금리 인상 등 공급환경이 개선된다면 시장상황의 반전 가능성이 예상됨

- 현재 종신연금 선호율은 12%로 나타났지만 2020년 퇴직연금 수령 시 종신연금 기대 선호율은 43%로 조사됨⁸⁾

■ 영국 보험회사들은 종신연금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2015년 이후 연금과 정기인출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연금 개발을 확대함⁹⁾

- 하이브리드 연금은 종신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정기인출의 소득 유연성 및 수익성을 결합한 상품으로 전통형 연금 상품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보증형 정기인출상품(Guaranteed Drawdown Products)으로도 불리는 하이브리드 연금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정기인출 상품에 고연령에서 연금이 개시되는 장수연금(Longevity Insurance)을 결합한 형태를 예로 들 수 있음
- 하이브리드 연금은 Met Life, AXA, AEGON 등 대형 3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음

〈그림 8〉 연금자유화 이후 신상품 제공 현황



자료: ABI(2018), "The New Retirement Marke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8) FT ADVISER(2018. 4. 12), "State of the annuity market 3 years after Armageddon"

9) Dominic Lindley(2019), "Fixing the freedoms", An Age UK Discussion Paper

■ 그러나 하이브리드 연금은 보험료가 비싸고 복잡한 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에 시장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하이브리드 연금은 복잡한 상품 특성으로 인해 자문서비스 없이는 제공되지 않으며, 복잡성으로 인해 소비자 이해도가 낮아 판매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고, 보험료도 전통형 상품에 비해 고가임

○ 이러한 한계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소득의 유연성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종신연금과 정기인출을 혼합하여 구매하거나 정기인출 시 인출금액을 낮게 조정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상품의 수요를 대체하기도 함

○ 한편 Solvency II 하에서 고연령에서 연금이 개시되는 장수연금(Longevity Insurance)의 자본부담이 크다는 점도 하이브리드 연금의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¹⁰⁾

10) FT ADVISER(2019. 9. 12), "Hybrid annuity launch paused due to lack of demand"

3. 일본 연금시장

가. 연금보험 기관별 가입현황

■ 일본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우체국, 농협공제조합, 전국노동공제조합, 손해보험 등에서 판매되며, 공사이율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의 가입 비중은 2018년 83.9%로 나타남

○ 2018년 생명보험 외에 공제조합이나 손해보험의 연금 상품 가입 비중은 21.9%임

○ 2006년과 비교하면 생명보험 가입 비중은 68.9%에서 83.9%로 15.0%p 증가한 반면 우체국, 농협, 전국노동공제조합, 손해보험 가입 비중은 2006년 41.1%에서 2018년 17.9%로 23.2%p 감소함

- 2007년 이후 판매 중단한 공영 우정 간이연금보험 비중이 2006년 대비 크게 감소 (15.0%p)하고, 농협공제조합과 전국노동공제조합, 손해보험계 연금보험 비중이 각각 2.8%p, 2.1%p,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일본 연금보험 상품의 가구별 가입유형(복수응답)

(단위: %)

구분	민영 생명보험				공영우정 연금보험	농협공제 조합	전국노동 공제조합 ²⁾	손해보험계 연금보험	기타
	공사이율형 연금보험	변액 연금보험	민영우정 연금보험 ¹⁾	민영보험계					
2006년	63.5	6.4	-	68.9	19.9	9.4	4.8	7.0	3.0
2009년	67.9	8.0	1.9	75.5	13.4	8.4	3.5	6.2	3.4
2012년	75.4	6.3	3.3	81.2	9.9	8.3	2.7	4.4	1.7
2015년	74.9	8.6	6.3	83.9	6.2	7.2	2.9	3.3	2.3
2018년	75.2	8.0	4.4	83.9	4.9	6.6	2.7	3.7	4.0

주: 1) 2007년 10월 1일부로 일본 우정민영화에 따른 간포(간이) 생명보험이 설립됨에 따라 2007년 이후부터 일본 우정국에서 파는 연금보험은 민영 생명보험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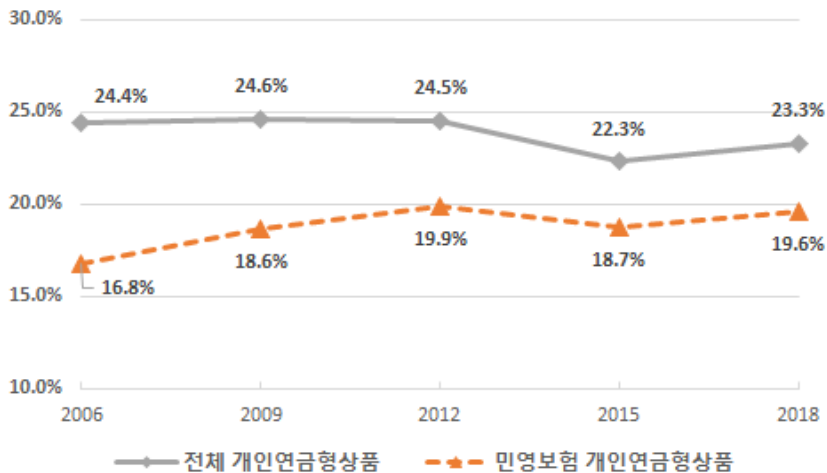
2)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제 사업으로 생명, 자동차, 화재(자연재해) 공제를 운영함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 2018년 전체 연금보험의 가구 가입률은 23.3%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률은 19.6%로 나타남

○ 2006년부터 2018년 전체 연금보험 가구 가입률은 24.4%에서 23.3%로 소폭 하락한 반면, 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률은 16.8%에서 19.6%로 소폭 증가추세(2.8%p)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9〉 일본 연금보험 가구 가입률



주: 1) 전체 연금보험 상품은 민영 생명보험과 공제형 생명보험은 물론 손해보험회사에 판매하는 연금보험을 포함함

2) 민영 생명보험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민영우정연금보험에 해당함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나. 연령·소득별 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률

■ 2018년 가구주 연령별 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률은 50~54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과 비교해 보면 29세 이하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29세 이하부터 39세까지의 2018년 연금보험 가입률은 전체 가입률 21.9%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9세 이하'의 연금보험 가입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임(연평균 13.9% 증가)

○ 40세에서 69세까지 연금보험 가입률은 전체 가입률 21.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개인연금 가입률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70세 이상 고령층의 2018년 연금보험 가입률은 10%대로 전체 가입률 21.9%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생명보험 연금보험 연령별 가구주 가입률(전체 생명보험)

(단위: %)

구분	2006	2009	2012	2015	2018	CAGR
전체	22.7	22.8	23.4	21.4	21.9	-0.3
29세 이하	3.2	3.7	3.9	8.8	15.3	13.9
30~34세	17.4	12.2	16.7	13.9	18.6	0.6
35~39세	18.8	18.6	14.9	16.6	20.0	0.5
40~44세	26.1	28.0	28.0	21.2	23.1	-1.0
45~49세	22.3	25.7	25.9	26.3	27.9	1.9
50~54세	29.5	30.4	30.3	25.8	31.9	0.7
55~59세	29.5	31.0	32.3	28.8	28.5	-0.3
60~64세	26.7	24.5	27.4	28.8	26.5	-0.1
65~69세	22.6	20.9	24.1	25.0	22.1	-0.2
70~74세	19.0	21.2	19.6	18.4	16.4	-1.2
75~79세	14.7	15.7	15.2	11.1	14.2	-0.3
80~84세	8.2	11.6	13.2	11.6	10.7	2.2
85~90세	14.3	14.7	23.8	7.0	10.5	-2.5
90세 이상	0.0	45.5	11.1	4.3	17.9	86.7

주: 전체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품은 민영 생명보험과 공제(민영화前 우체국, 농협, 전국노동공제조합)에 판매하는 연금보험임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 2018년 가구 소득별 연금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소득이 400만 엔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 가입률은 10%대로 나타났고 가구 소득이 400만 엔 이상 1,000만 엔 미만의 경우 연금보험 가입률은 20%대로 나타남

- 세부 소득구간별로 연평균 상승률은 혼조세를 보임

○ 가구 소득이 1,000만 엔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 가입률은 30%대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1.2%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가구 소득별 연금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200만 엔 미만	200~300만 엔 미만	300~400만 엔 미만	400~500만 엔 미만	500~600만 엔 미만	600~700만 엔 미만	700~1,000만 엔 미만	1,000만 엔 이상
2015년	10.1	14.7	15.7	17.8	22.6	27.9	27.0	35.9
2018년	10.8	13.3	18.6	21.8	22.5	22.4	27.4	37.2
CARG	2.3	-3.3	5.8	7.0	-0.1	-7.1	0.5	1.2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다. 납입 보험료와 보험금

■ 2018년 연금보험 납입보험료는 20.1만 엔으로 2006년부터 연평균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납입 비중은 '12~18만 엔 미만'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6~12만 엔 미만'이 17.3%, '24~36만 엔 미만'이 15.1%로 나타남

○ '6만 엔 미만'의 낮은 보험료 납입 비중이 연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평균 납입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4〉 연금보험의 연간 납입보험료 비중과 평균 납입보험료

(단위: %)

구분	6만 엔 미만	6~12만 엔 미만	12~18만 엔 미만	18~24만 엔 미만	24~36만 엔 미만	36~48만 엔 미만	48~60만 엔 미만	60만 엔 이상	미응답	평균 납입 보험료 (만 엔)
2006년	11.5	16.3	27.1	9.2	16.0	4.8	5.2	4.7	5.2	21.6
2009년	11.6	16.3	23.6	10.2	12.1	4.7	1.9	3.0	16.6	18.9
2012년	15.0	16.9	23.2	8.6	12.4	4.1	2.1	3.4	14.3	19.3
2015년	12.0	16.2	25.6	8.9	13.2	3.7	2.2	2.4	15.8	17.9
2018년	16.5	17.3	24.4	9.6	15.1	4.3	2.9	5.1	4.9	20.1
CARG(%)	3.1	0.5	-0.9	0.4	-0.5	-0.9	-4.7	0.7	-0.5	-0.6

주: 2009년 이전에는 간이보험과 농협공제조합이, 2006년은 전국노동공제조합이 미포함됨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 2018년 연금보험 가입세대의 연간 수령액은 평균 102.5만 엔으로 나타남

○ 연간 수령액 '108만 엔 이상'의 비중이 21.7%로 가장 높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36만 엔 미만'이 17.3%, '60~72만 엔 미만'이 12.9%로 나타남

○ 비교적 낮은 구간인 '36만 엔 미만', '48~60만 엔 미만'의 연간 수령액 비중은 각각 연평균 0.2%, 1.9% 증가한 반면 나머지 금액대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단위: %)

구분	36만 엔 미만	36~48만 엔 미만	48~60만 엔 미만	60~72만 엔 미만	72~84만 엔 미만	84~96만 엔 미만	96~108만 엔 미만	108만 엔 이상	미응답	평균 연간 수령액 (만 엔)
2006년	16.9	10.1	7.3	13.7	7.0	4.8	6.7	22.4	11.0	95.8
2009년	14.1	8.8	7.3	14.8	5.3	3.4	6.0	24.0	16.2	111.9
2012년	16.7	6.9	9.8	12.1	7.1	3.6	5.8	23.3	14.9	117.2
2015년	15.8	7.2	8.8	13.2	7.0	2.7	6.1	25.2	13.9	101.0
2018년	17.3	7.6	9.2	12.9	6.5	3.1	6.0	21.7	15.7	102.5
CARG(%)	0.2	-2.3	1.9	-0.5	-0.6	-3.6	-0.9	-0.3	3.0	0.6

주: 2009년 이전에는 간이보험과 농협공제조합이, 2006년은 전국노동공제조합이 미포함됨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라. 연금 개시연령과 수령기간

■ 2018년 연금 개시연령으로는 60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비중이 세대주 28.7%, 배우자 24.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비중이 세대주 26.7%, 배우자 23.4%로 60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 66세 이상 고연령의 연금 개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65세 이하 저연령의 연금 개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세대주의 경우 66세 이상의 연금 개시 비중은 2006년부터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65세 이하의 연금 개시 비중은 연평균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배우자의 경우 66세 이상의 연금 개시 비중은 2006년부터 연평균 4.2% 증가한 반면, 65세 이하의 연금 개시 비중은 연평균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연금보험 개시 연령

(단위: %)

구분		59세 이하	60세	61~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미응답
세대주	2006년	5.3	31.1	7.6	27.5	2.7	5.7	27.1
	2009년	5.6	30.5	5.3	25.8	3.0	7.6	26.7
	2012년	3.9	32.1	6.1	26.6	3.5	8.2	25.9
	2015년	4.0	29.0	5.9	26.1	4.6	8.0	28.8
	2018년	3.5	28.7	5.0	26.7	5.3	10.7	25.4
	CARG	-3.4	-0.7	-3.4	-0.2	5.8	5.4	-0.5
배우자	2006년	7.1	28.6	5.2	23.5	2.9	3.2	34.9
	2009년	6.1	26.3	5.3	22.7	2.5	6.5	38.5
	2012년	4.6	29.3	3.2	22.0	3.8	5.8	37.5
	2015년	5.0	26.6	5.8	22.3	4.0	6.1	37.1
	2018년	5.0	24.5	5.0	23.4	3.9	6.4	38.9
	CARG	-2.9	-1.3	-0.3	0.0	2.5	5.9	0.9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 2018년 연금 수령기간으로 ‘1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대주 43.1%, 배우자 36.4%로 다른 연금 수령기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8년 연금 수령을 ‘중신’으로 받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세대주 17.5%, 배우자는 12.7%로 ‘10년’에 이어 높게 나타남

○ 연금 수령기간을 ‘5년’ 혹은 ‘15년’으로 응답비율은 2006년 대비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연금보험 수령기간

(단위: %)

구분		5년	10년	15년	종신	기타	미응답
세대주	2006년	11.6	39.1	8.6	17.1	1.8	29.6
	2009년	9.6	38.6	7.6	16.5	2.1	29.2
	2012년	8.7	43.5	8.3	15.4	2.2	26.6
	2015년	9.4	42.7	6.0	15.5	1.3	30.8
	2018년	7.7	43.1	8.4	17.5	3.4	26.1
	CARG	-3.4	0.8	-0.2	0.2	5.4	-1.0
배우자	2006년	8.7	36.5	8.5	15.1	1.6	35.3
	2009년	7.7	39.7	7.5	12.0	1.1	37.1
	2012년	8.2	38.9	7.7	13.2	1.8	35.5
	2015년	8.5	41.5	3.8	12.2	0.9	38.1
	2018년	6.2	36.4	5.8	12.7	3.1	39.8
	CARG	-2.8	0.0	-3.1	-1.4	5.7	1.0

자료: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 12),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4. 중국 연금시장

■ 중국의 연금보험제도는 기본양로보험,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포함한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양로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며, 가입자 유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및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은 도시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기업과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각각 통합계정 및 개인계정으로 적립됨
-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은 기존의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과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의 통합으로 출범했으며 정부지원금, 사회단체기부금과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개인계정으로 적립됨

〈표 8〉 기본양로보험제도

구분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
도입 시간	1951년 2월부터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199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2014년 2월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과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의 통합으로 출범
가입 대상	도시 직장 근로자(2014년 10월부터 공무원양로보험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무원도 가입 대상에 편입)	16세 이상 도시와 농촌 주민(비 직장 근로자)
보험료 납입방식	통합계정(부과방식): 기업이 근로자 임금의 20%를 보험료로 납입(지역마다 납입금액이 다를 수 있음) 개인계정(적립방식): 직장 근로자가 임금의 8%를 보험료로 납입	개인계정: 정부지원금, 사회단체기부금, 가입 납입 보험료
보험금 지급방식	통합계정기금: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 이상, 법정연금수령나이부터 수령 가능 개인계정적립금: 연금수령나이부터 수령가능, 전액수령	기초양로금 + 개인계정적립금
가입 방식	강제가입	비강제가입

주: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은 2009년 9월에 농민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은 2011년 7월에 도시 비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됨

자료: 海通证券(2018. 12), “中国养老保险体系”

○ 기업연금은 한국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며, 1991년 6월부터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됨

- 기업연금은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모두 개인계정으로 적립됨
- 중국의 근로자 기업연금은 비강제가입방식으로 도입됐지만 2017년 12월부터 자동 가입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대부분 근로자 기업연금은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무원 직업연금은 2008년 3월부터 개별 지역의 정부기관에서 도입됐지만 가입자가 많지 않았으며, 2014년 10월 공무원 양로보험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체 정부기관의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포함시켰음

〈표 9〉 기업연금제도

구분	기업연금(직장 근로자)	직업연금(공무원)
도입 시기	1991년 6월	2008년 3월
가입대상	직장 근로자	정부기관 공무원(정부 설립 사업단체 임직원 포함)
보험료 납입방식	개인계정: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임금의 8% (최고 8%), 4%대로 납입한 보험료를 개인계정으로 적립	개인계정: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각각 임금의 8%, 4%대로 납입한 보험료를 개인계정으로 적립
보험금 지급방식	개인계정적립금을 법정연금 수령나이부터 수령 가능, 전액수령, 연금과 일시금 선택 가능	개인계정적립금을 법정연금 수령나이부터 수령 가능, 전액수령, 연금과 일시금 선택 가능
가입방식	자동가입 ¹⁾ (2017년 12월 이전까지 근로자 기업연금의 가입방식은 비강제가입이었음)	강제가입(2014년 10월 이전까지 개별 지역의 정부기관의 공무원만이 가입했음)

주: 1) 자동가입은 신입직원이 입사 시부터 기업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다만 사후에 탈퇴가 허용되고 있음

자료: 海通証券(2018. 12), “中国养老保险体系”

○ 개인연금은 보험소비자가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구입한 연금 상품을 의미함

-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및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에 한정되고 있음¹¹⁾

- 2018년 기준 중국에서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69개가 있음

■ 2018년 기준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과 비교할 때, 기본양로보험은 가입자는 물론 기금규모에 있어서 모두 앞서고 있음¹²⁾

○ 기본양로보험의 총 가입자 수는 9.43억 명이며, 누적 적립금액 기준 기금규모는 5조 8,152억 위안임

- 기본양로보험 중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과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의 가입자 수는 각각 4.2억 명, 5.2억 명이며, 기금규모는 각각 5조 901억, 7,250억 위안임

11) 생명보험회사는 개인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만을 판매하는데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는 개인연금 상품 외에도 기업연금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

12) 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19. 6), “2018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 한편, 중국 정부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의 보충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기금규모는 2조 9,632억 위안임
- 기업연금 중 근로자 기업연금 및 공무원 직업연금의 가입자 수는 각각 2,388만 명, 2,970만 명을 기록했으며, 기금규모는 각각 1조 4,770억 위안, 4,900억 위안임
- 개인연금의 경우 2015년 기준 개인연금 상품의 가입자 수는 1.1억 명, 보험가입금액은 1조 6,000억 위안임

〈표 10〉 연금보험제도 운영 현황(2018년)

구분	기본양로보험		기업연금		개인연금
분류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업연금 (근로자)	직업연금 (공무원)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연금 상품
가입자 수	4.2억 명	5.2억 명	2,388만 명	2,970만 명	1.1억 명
기금규모 (누적금액)	5조 901억 위안	7,250억 위안	1조 4,770억 위안	4,900억 위안	보험가입금액은 1조 6,000억 위안

주: 개인연금 상품의 가입자 수, 보험가입금액은 2015년 기준 집계된 수치임

자료: 海通证券(2018. 12), “中国养老保险体系”; 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19. 6), “2018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 기본양로보험은 노인부양비¹³⁾ 상승, 소득대체율¹⁴⁾ 하락, 낮은 투자수익률 등의 문제점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기본양로보험 중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가입자를 기준으로 계산된 노년부양비는 1992년에 20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 38명으로 상승함¹⁵⁾
- UN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수가 2017년 1.5억 명에서 2030년 2.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노년부양비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2005년에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9%로 설정했지만,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소득대체율은 2005년 51%에서 2017년 46%로 하락함

13) 노년부양비는 15~60세의 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부양할 60세 이상 인구 수를 의미함

14) 소득대체율은 퇴직자 소재 지역의 평균 월급 대비 퇴직자가 지급받는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함

15) 1992년에 근로자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17년에 근로자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

- 중국에서 강제퇴직제도¹⁶⁾가 실시되고 있으며,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직장 근로자의 기본양로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기본양로보험기금의 투자대상이 2015년까지 주로 국채 및 은행의 정기예금에 한정되어 과거 평균 연간 투자수익률은 2.3%에 불과한데, 이는 사회보장기금(8.4%) 및 근로자 기업연금(7.8%)의 투자수익률보다 더 낮음
 - 2015년 8월 기본양로보험기금 관련 투자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수익률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사회보장기금이나 기업연금의 투자수익률에 못 미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양로보험의 통합운영, 보충재원 확대 및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거나 취하고 있음
 - 2007년 1월 중국 정부는 성(省)¹⁷⁾급 이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을 성급 지방정부가 운영하도록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통합운영이 완성될 경우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은 199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됐지만 지역 간의 발전 수준 차이 때문에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음
 - 2019년 7월까지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쓰촨, 칭하이, 쓰장, 광둥, 푸젠, 후난 총 10개 성의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통합운영이 완성됨
 - 한편, 2018년 6월 중국 정부는 중앙조절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는 성급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을 운영할 계획임
 - 2017년 11월 중국 정부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일부 지분을 사회보장기금으로 편입하기로 함
 - 2019년 9월까지 총 67개 국영기업의 일부 지분을 사회보장기금의 투자자산으로 편입했으며, 시장가치 기준 편입지분은 8,601억 위안을 기록함
 - 2015년 8월 중국 정부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위탁투자 시행, 투자대상 확대를 포함한 자산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함

16) 남자의 퇴직나이는 60세, 여자의 퇴직나이는 55세임. 단, 생산직 여성 근로자의 퇴직나이는 50세임

17) 성(省)은 중국의 행정구역 단위이며 한국의 도에 해당됨

- 자산운용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은 위탁운용회사는 각 성급 지방 정부가 운용하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을 관리할 수 있으며, 기본양로보험기금의 투자 대상은 기존의 국채와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주식, 주가지수선물, 국채선물까지 확대됨
- 2018년 기준 총 17개 성급 지방정부는 6,050억 위안의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기금을 위탁운용회사에게 위임했으며 전체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임

■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일련의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2013년 12월 중국 정부는 기업연금 가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연금(근로자 기업연금 및 공무원 직업연금 포함)에 대해 연금수령 시 과세방식(EET)을 채택한다고 발표함
- 2017년 12월 중국 정부는 근로자 기업연금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방식 변경, 납입 보험료 인하, 적립금 귀속 방법 명시, 수령방식 다양화를 포함한 ‘기업연금방법’ 개정안을 발표함
- 2018년 5월 중국 정부는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수령 시 과세방식(EET)을 채택하는 연금 상품 판매를 허용함
- 2019년 3월 중국 정부는 개인연금 상품의 공급을 높이기 위해 영국계 생명보험회사인 Heng An Standard Life의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함
 - 이에 따라 중국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는 8개에서 9개로 증가함

〈표 11〉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관련 활성화 방안

기업연금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세제혜택 (2013년 12월)	- 기업연금의 보험료 납입 및 운용 단계에는 비과세로 처리하며 연금수령 시 과세로 처리 - 단,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임금의 4% 내에서 비과세로 처리하며 연금수령 시 개인소득세율로 과세	세제혜택 (2018년 5월)	- 개인연금의 보험료 납입 및 운용 단계에는 비과세로 처리하며, 연금수령 시 과세로 처리 - 매달 보험료 비과세 한도는 1,000 위안 이하이며, 연금수령 시 수령 연금의 75%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
‘기업연금방법’ 수정안 발표 (2017년 12월)	- 가입방식 변경: 과거의 비강제가입 방식에서 자동가입방식으로 변경 - 납입 보험료 인하: 기업과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과거 임금의 16.67%에서 12%로 인하 - 적립금 귀속 방법 명시: 기업이 납입한 보험료로 적립된 기금은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명시 - 수령방식 다양화: 법정연금 수령나일부터 가입자가 원하는 횟수대로 수령이 가능	외국계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 설립 허가 (2019년 3월)	- 보험 산업의 대외개방 확대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의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 설립 허용 - 영국계 생명보험회사인 Heng An Standard Life의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 설립 허가

자료: 中国政府网(2017. 12), “企业年金办法”; 国家税务总局(2013. 12), “关于企业年金职业年金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 新浪财经(2019. 3), “EET型税收优惠是我国个人养老产品发展的破局点吗?”; 上海证券报(2019. 3), “金融对外开放再迈大步首家外资养老保险公司获批筹建首家合资保险集团浮出水面”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점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중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이슈보고서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 Insurance Business Report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보험동향』 2019년 가을호 (통권 91호)

발행일	2019년 11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9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